



# 제 1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 기간 | 2015. 10. 12(월) ~ 10. 16(금)

| 장소 | 중국 저장성 이우시

| 협력 | (중)인민대외우호협회, (일)자치체국제화협회

| 참가 |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



시·도 뉴스레터 2015년 가을호 Vol. 56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 2015년 가을호 동권 56호 | 2015년 9월 1일 발행 | 등록번호 서울·미 0038 | www.gaok.or.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시·도 뉴스레터 Vol. 56

마이산 돌탑

## 2015. Autumn

시도지사코너 |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시책 소개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시도 기행 |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집중조명 | 지방감사시스템의 실태와 과제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원칙과 방향  
국제교류탐방 | 일본 천년고도 '교토부', 한국과의 만남을 시작하다  
국제화지원정보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누가 만들었을까?

남들과 다른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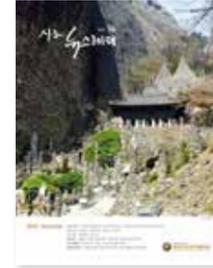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디자인 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꿔 더 많은 내일 내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함께 만드는 미래  
**NEXT 경기**

경기도 일자리센터 031-8008-8663

# 시각 뉴스레터 Vol. 56



**발행일** 2015년 9월 1일(통권 56호)  
**발행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중  
**등록번호** 서울 중·마 0038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16층(관철동, 삼일빌딩)  
**편집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박성환  
**편집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홍보부  
**전화** 02-2170-6024  
**팩스** 02-2170-6081  
**디자인** (주)코비즈(02-2272-1400)

전북의 풍경 - 마이산돌탑

※여기에 실린 기사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시각뉴스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www.gaok.or.kr](http://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5. Autumn



### 04 시도지사코너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 20 시책 소개

인천광역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다  
광주광역시,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열다  
전라북도, 국내 최초 벽지노선 대중교통서비스  
전라남도, 어르신들의 발 '100원 택시'로 전국의 교통복지 모델이 되다

### 34 시도 기행

서울특별시 | 어벤져스2의 서울시내 촬영지로 떠나는 영화여행  
전라남도 | 남도에서 만난 특별한 가을여행

### 42 집중조명

1. 지방감사시스템의 실태와 과제 |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원칙과 방향 |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48 정책연구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쟁점 및 대안

### 50 지방정부소식

지방정부 주요 행사 및 국제교류 소식 소개

### 56 월드리포트

메르스, 요우커들의 발길을 돌리다

### 60 전문가에게 묻다

냉엄한 국제정치와 우리의 안보전략

### 62 국제교류탐방

일본 천년고도 '교토부', 한국과의 만남을 시작하다

### 64 국제화지원정보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 66 협의회 동정

한중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 개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제5기 해단식 및 제6기 발대식 개최

### 67 시도 문화유산 탐방

옛 조상의 숨결과 자연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충남 아산 외암마을

### 70 시도 축제

가을의 정취 따라 시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가을축제

### 74 생활 속 건강

스마트 시대, 편리함을 시기한 불청객 '수근관(손목 터널) 증후군'

### 76 여행 스케치

여의도의 재발견, 여의도는 살아있다

### 80 명작이야기

하늘과 바다가 감싸 안은 천공의 섬, 몽 생 마셀

### 81 영어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한마디

Thelma & Louise (1991)  
"We may have been off track, but now we're back to our true self"



# 살맛 나는 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대전 만들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민선6기 출범 후 천류불식(川流不息)이란 말처럼 쉬 없이 1년을 보냈다. 소통·경청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일자리·기업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대전광역시(이하 대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민선6기 1년 주요 성과로

**첫째는 민선6기 시정의 기본 틀을 확립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시민이 주인 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시정구호를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 나게'로 정했다. 시정방향은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으로 확정하고, 시민, 경청, 통합의 행정 기조 하에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행복드림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시장 제도 운용 등이 있다.

**둘째는 경제 우선, 도시재생, 대중교통혁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 추진으로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했고, 산업용지(하소·문지) 20만8,000㎡를 공급한 데 이어 2020년까지 10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옛 도청사를 문화예술촌·근대문화예술특구로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114곳)을 추진하여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최종 확정하고,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확충 등 친환경 미래교통환경을 확충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트램 체험



“  
시정방향은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으로 확정하고, 시민, 경청, 통합의 행정 기조 하에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행복드림을 실천하고 있다

”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대전청소년위캔센터 개관



기초과학연구원 조감도



2017년 APCS 대전 유치

**셋째는 수년간 답보됐던 지역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희덕IC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반영(14년 11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옛 충남도청사의 국가매입 및 활용근거 마련(14년 12월), 구봉지구 발전연수타운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15년 3월) 등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세종시 2단계 수도물 공급사업자 선정, 국제비즈니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 보상계획 공고, 자원순환단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착공,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 추진, 사이언스 콤플렉스 정상추진을 위한 최종 협약 등 지역 현안사업이 실마리를 찾아 구체화하고 있다.

**넷째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책을 통해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대전 3대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청소년위캔센터·손소리복지관·청년인력관리센터를 개관하였으며, 도시·건축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대덕특구 상생협력·공원화 등 22개 사업 추진, 시장-구청장 및 주요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 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청년인력관리센터, 굿-잡 행복드림 버스,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출범 등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기반을 구축했고,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 설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고용 확대를 추진해 가고 있다.

**앞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위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지속 실천하면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옛 충남도청사 인근을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하고 원도심으로 사람이 모이도록 내년부터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을 트램과 연계된 대중교통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중앙부처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변화에 맞춘 노선조정, 유계승강장 확대, 운영여건 균형조정 및 증차로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예방,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충으로 교통약자 사회참여 기회확대,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운동 확산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7월 2017 아·태도시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센터, 국립철도박물관 등 공모사업 유치에도 성공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④



국방기술품질원 신뢰성센터, 국립철도박물관 등 공모사업 유치에도 성공하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



대전-충남 상생협력 협약



#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산업수도 울산광역시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과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꿈꾸며 시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섬기고 소통하는 일 중심의 활기찬 시정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울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창조와 품격, 희망이 살아있는 울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함은 물론, 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2015년 울산의 시정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울산)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패러다임 변화로 울산은 많은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시대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15년 울산의 시정방향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정하고 7대 비전과 41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울산의 무대를 중앙과 세계로 넓혀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1. 사람중심, 안전제일 도시 조성

먼저 '사람중심, 안전제일 도시 조성'을 위해 방재안전도시 인증 및 안전문화 확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 맞춤형 소방안전 및 재난대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현장중심 재난예방 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정보 관리체계 강화와 산단사고 예방 합동점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매곡 119안전센터 조기 개소 등 소방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2.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건설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을 역점 시책으로 삼고 '울산발 창조경제'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투자환경 조성에도 힘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혁신거점이 될 테크노산단 조성은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에 ICT 등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지, 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시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계획이다.

#### 3. 이웃사랑,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이웃사랑,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에도 앞장선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2장애인체육관과 중·동구 노인복지관을 개관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구축하는 한편, 여성가족개발원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산업현장 청취



UNSDR 동북아시아사무소와 방재안전도시 업무협약 체결

“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정하고 7대 비전과 41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가장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

”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문화 조성, 아이돌봄이용 가정서비스 강화,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여성과 가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생동하는 자연,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건설

‘생동하는 자연,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울산시는 더 맑은 대기환경조성, 하수인프라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전사업,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 숲과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를 지속 조성하고, 남산공원 등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하며, 연안 유희지와 영남알프스의 산림자원을 복원·개발할 계획이다.

5.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예술 육성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시립미술관, 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콘텐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추진,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및 세계 알프스 도시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울산관광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강동권 해양관광복합휴양도시조성 및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6.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울산대교 개통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창조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될 도시 중장

기 발전계획 수립, 도시경관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울산대교는 세계 세 번째, 국내 최대 현수교로서 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 구간선 가로망이 구축되어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 교통체증 해소 등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등 도시권 도로망 확충 및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7.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열린 시정 구현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열린 시정 구현’ 전략에 따라 지역발전 현안사업 능동 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의 대화,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혁 현장감담회,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등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조직은 일·정책 중심으로 강소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운용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6%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방예산영향평가제도 시행, 내실 있는 주민참여제 운영, 재정분석과 재정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제언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미흡한 점도 많다.

먼저,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지방행정의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 등 지방재정 부담완화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여러 분야에 걸쳐 너무나 많은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정비나 환경정비, 문화재 관리, 토지이용, 조직·인사 등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을 믿고 이러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중앙정부에 바란다. 지방정부도 이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축적해왔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에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도 국가사무의 집행,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 간의 갈등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 ●



울산대교 정동

“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

청초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태화강 심리대발 시민걷기 행사



장미축제



#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신도청 시대,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이하 경북)는 금년이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3년차로 국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진단하고, 지역적으로는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고 동해안 바다시대를 구체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2015년도 도정 운영의 큰 방향을 '경제 혁신'과 '미래 준비'로 제시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한반도 황금허리 광역벨트 구축, 경북 문화융성 세계화 플랜 추진 등 3대 신(新)구상 정책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적 가동, 가시적 성과 창출

지난해 1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시킨 1+1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른 시도의 경우 1개씩인데 반해 경북만 유일하게 삼성이 참여하는 정부주도형, 포스코가 참여하는 기업자율형 등 2개를 구축했다.

삼성의 참여로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 설치된 정부주도형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팩토리(공정혁신) 확산, 7대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 전통문화자산의 산업화, 농어업의 혁신을 통한 6차 산업화 등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업자율형으로 포스텍 내에 설치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의 기업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며,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첨단소재 클러스터 구축, 창의공작소 운영 등으로 강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게 된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4대 전략 30대 중점과제 실행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균형경제, 미래경제, 기초튼튼 등 4대 전략과 30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액션플랜을 구체화해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작동시켜 나가는 한편, 미래경북 발전을 위해 1+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격적 가동과 5+2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

1+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스마트팩토리 90개 기업, 강소기업 50개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대 신산업인 탄소섬유와 3D 프린팅과 5대 주력사업인 ICT, 로봇, 의료·바이오, 물융합, 에너지의 5+2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주력해 나가는 한편, 원전현장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연결을 위해 원자력 인력 양성원 조기 착공 등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에도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 도청이전 및 신도시 조기 활성화,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내 시·군이 골고루 잘 살고 균형 있는 경북발전을 위해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 혁신도시 건설, 광역교통망 형성 및 4대 균형발전 축을 체계화해 나간다. 도청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남권의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인 도청 이전은 선발대 37명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신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정주여건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4대 균형발전 축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북부권은 미래 농생명 벨트로, 동해안권을 해양 신산업 벨트로, 서부권을 스마트 융복합 벨트로, 남부권을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로 특화 발전시켜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천혁신도시는 이전대상 12개 기관에 5,065명 중에서 도로공사 등 8개 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상북도 신도청

관 1,906명이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올해 중으로 완료한다.

###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본격화, 경북 문화융성 플랜 구체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경북이 추진하는 '경북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를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일 나진~하산 철도를 거쳐 나진~포항신항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4만500t이 포스코로 시범 운송하는 등 포항이 대륙 진출의 물류허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경북은 '이스탄불 in 경주 2014', 실크로드 대장정 등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융성의 국정과제를 경북형 문화융성 플랜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스탄불 측에서 직접 경주에 와서 개최한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당초 목표를 초과한 8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뤘으며, 올해 가을에는 경주에서 동서양이 어우러진 찬란한 문화 대향연이 펼쳐진다.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간 세계 4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통해서다. 행사기간 동안 외국인을 비롯해 1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육상 실크로드, 2014 해양 실크로드에 이어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정부사업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이자 실크로드 대장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통일 염원과 실크로드 문화권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꿈, 하나의 대륙'을 슬로건으로 지난 7월 14일 출발해 8월 2일까지 20일간 경주~서울~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모스크바~베를린으로 이어지는 14,400km 유라시아를 횡단한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대륙횡단철도로 연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가속화에 기여했다.

### 3대 대형 신규 SOC 집중

경북에서는 잇따라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광역 SOC 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경북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결과 금년 중에 고속도로 2개, 철도 2개 등 15개 노선의 개통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등 도내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년도에는 국비 6조 3천억 원을 SOC 사업에 투입, 신규 12개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북방진출 핵심 SOC 사업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동해중부선 철도 등도 속도를 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동해와 환황해 상생을 위해 세종시~도청신도시 고속도로와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 상생을 위해 중부내륙 KTX, 영남권 상생을 위해 남부내륙 철도부설 등 대형 신규 SOC 사업에도 다방면으로 집중해 나가고 있다.

###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기 가시화

지난해 11월 신한울 원전 대안사업의 타결과 국제 원자력 인력 양성원, 원자력 기술표준원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고, 원전세도 9년 만에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그동안 공을 들여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더욱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경북형 행복 플랜 가동,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기 둔화, 기업투자 위축 등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지난해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왔으며, 계속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친서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모든 도민이 소외됨 없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과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위한 '경북형 복지모델 가동'과 'FTA 대응을 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함께 잘 사는 행복 경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잇따른 FTA 타결의 대처를 위해 FTA 무역이익 공유제·원산지 증명 확대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와 인력양성·품질 고급화·수출확대 등 자구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해 사회 공동체 회복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치매, 독거노인, 행복경로당 등 노인 효(孝) 복지 3대 약속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 3대 국제행사 성공 개최, 민족자존의 섬 울릉도·독도 가꾸기

지난 4월 성공리에 치러낸 '제7차 세계 물포럼 2015'와 오는 8월과 10월 개최 예정인 '실크로드 경주 2015',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3대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민족자존의 섬 독도수호를 위해 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울릉공항 건설 등 기반을 튼튼히 하고 뮤지컬·문예대전·패션쇼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서 6선의 단체장인 김관용 도지사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초선 같은 6선'의 자세로 일로써 승부하고 도정 성적표로써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2015

철의 실크로드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람중심 경북세상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을 것”



당당한 경남시대, 도민이 행복한 “경남미래 50년”을 완성하겠습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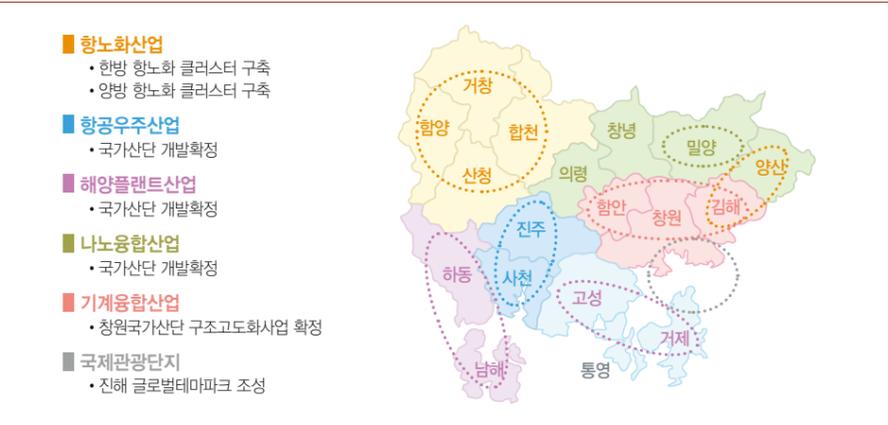
홍준표 도지사는 2012년 12월 20일 취임하여 350만 도민의 꿈과 경남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험 없이 달려왔고, 그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

### 1. 경남미래 50년 사업 추진

지난 40년간 창원외의 기계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이 경남경제를 견인하였으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경상남도는 5+1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경남미래 50년, 5+1 핵심전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우주산업 사천 진주</li> <li>• 나노융합산업 밀양</li> <li>•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거제(생산단지), 하동(연구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노화 산업 거창·함양·산청·합천(향노), 양산(양노)</li> <li>• 기계융합산업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li> <li>• 국제관광단지 조성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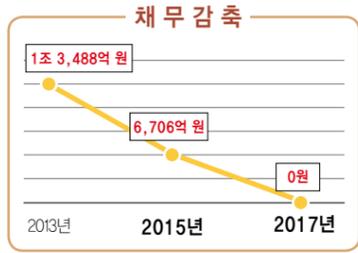
특히,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 4개소에 대한 개발을 확정하였는데, 그중에 3개 국가산단이 경남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창원 국가산단은 혁신산단으로 선정되어 나노·해양플랜트·ICT 기술이 융·복합된 최첨단 기계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고, 향노화 산업도 향노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도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에 FOX사와 공동대응하여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 2. 재정 건전화 달성

경상남도는 고강도의 채무감축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자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7년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2년 7개월 전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할 당시 경상남도의 부채는 1조 3,488

“ 경상남도는 5+1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



억 원이었다. 7,600억 원을 갚고, 지금은 6천억 원대의 채무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 이후 하루에 9억 원씩을 갚은 셈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10.9%로 압도적인 전국 1위이다. 거가대교 재구조화, 복지 누수 차단, 공기업 구조조정, 지방채 없는 예산 편성 등 피를 깎는 자구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남發 재정 건전화 정책은 정부 공기업개혁의 모델이자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도 올해 서민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 3,965억 원(전체예산의 34.3%)을 편성하여 “증세 없는 복지”를 직접 실천해 나가고 있다.

### 3. 경남發 혁신으로 깨끗하고 일하는 도정 구축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출자출연 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384명을 감축했다. 복지 누수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상시 모니터링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여 2012년도 15위이던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에는 3위로, 12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 4. 홍준표 브랜드 서민 복지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홍준표 브랜드 서민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 ① 단계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운영

경상남도는 단계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치고 있다. 1단계로 초·중·고 학습 시기에는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교재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진주로 이전하는 인재개발원 자리에 설치되는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중고등학생들이 24시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대규모 독서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280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들에게 EBS 교재 및 수강권 지원 등이 가능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여민 등록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는데, 58천여 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2단계로 대학입학 시기에는 서민 자녀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 안에 1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70명 이상에게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3단계로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확대한다. 현재 창원에 있는 경남학사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재경 기숙사인 가칭 ‘남명학사’를 조기에 건립하여,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들이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4단계로 대학생 대상의 기업트랙,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의 하이트랙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자녀들이 우선 선발되는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다.



####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 추진

경상남도는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민복지 7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경상남도광역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舊도심지역 생활밀집지 40개 지역의 기초·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행하고, 둘째 경남 주거복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舊도심지역 독거노인 생활밀집지 40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생활·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농촌 산간·벽지지역 등 기초·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 가정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넷째 경상남도 안정사회에 위탁하여 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 60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여 독거노인 서비스 미수혜자 71천 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여섯째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2인 1조로 독거노인 자택에 방문하여 말벗 및 가사 지원 등을 하는 ‘노-노 케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감지·가스·화재 센서기 및 긴급호출기 설치 등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보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2014년 정부평가 결과 성적 우수 분야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18억 5천만 원 전액을 서민복지사업에 투자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 5. 좋은 일자리 창출

경상남도는 도내 대학생과 고교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대학교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상자가 졸업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취업하는 경남형 기업트랙을 운영함으로써, 2015년 8월 현재 KAI 트랙 등 59개 트랙, 752명이 운영되고 있고, 2017년까지 1,000명의 트랙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인 하이트랙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2015년 8월 현재 미래항공(주) 트랙 등 11개 트랙, 86명이 운영되고 있고, 2020년까지 1,000명의 트랙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도 경상남도는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고, 도민이 행복한 “경남미래 50년”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개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 인천광역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다

전 세계 문자의 종합 전시와 체험, 연구의 산실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에 들어선다. 지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자박물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인천송도국제도시가 건립 장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공모 사업에 총 9개 시·도가 신청해 그동안 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심사를 거쳤다. 송도와 세종시, 경기도 여주 등이 최종 경합을 한 결과다. 인천 송도는 실현 가능성과 접근성 등 이용 편의성과 잠재시장 규모, 발전 가능성 등 다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제기구와 외국인 학교, 다양한 기업과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등이 밀집한 국제업무단지 내에 위치해 국제문자 교류와 관련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지난 5월 29일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세계문자박물관 희망지로 내놓은 송도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가깝고 송도컨벤시아와 고급호텔 등 숙박, 회의 등의 MICE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이 강화에서 만들어졌고, 금속활자를 발전시킨 인쇄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점과 1782년 정조(正祖)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 부속 도서관인 외규장각이 있다는 점, 한글 점자 창시자인 송암 박두성 선생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 등을 피력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15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발표심사’에 직접 참석해 심사위원을 상대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천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세계 주요문자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관리, 전시, 교육, 연구, 교류 등의 거점을 마련하고, 문화산업 및 관련 관광산업 진흥 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현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인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한류 콘텐츠 다변화’에 인천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문자박물관을 지역 내 박물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화시설로 발전시켜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문자박물관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규모로 조성되며, 세계문자의 탄생과 발달 과정, 문자 관련 인물사, 문자 활용 및 문자의 미래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전시시설은 종합관과 국가관, 기업관, 상설·기획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교육·연구 시설과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 세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인천송도국제도시



외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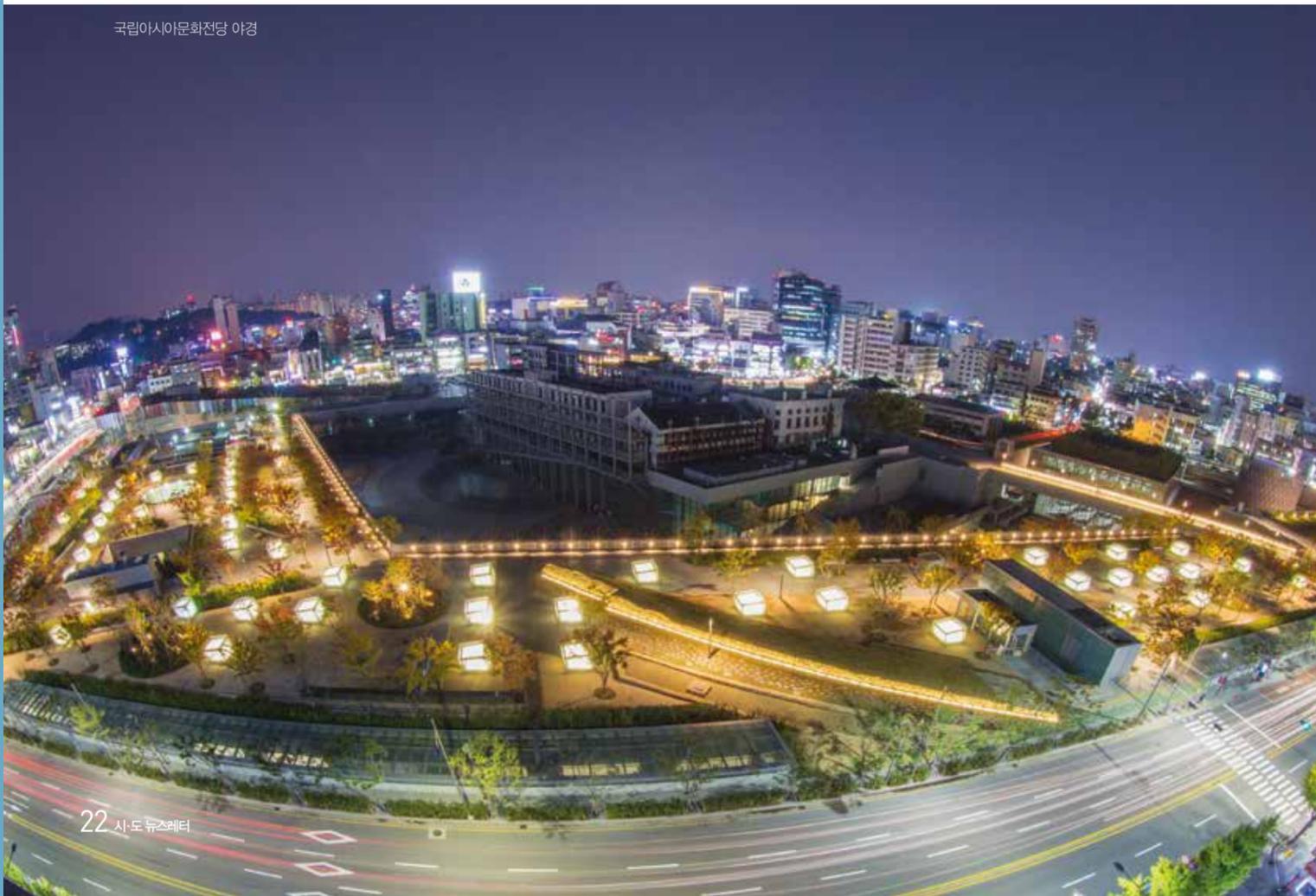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위치도

# 광주광역시,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열다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 창조의 플랫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9월에 개관축제를 연다. 지난 2005년 국책사업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 삽을 뜬지 10년 만이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 인프라 불모지였던 광주는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Hub)로 변모하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조 플랫폼을 지향하는 문화전당은 단순히 공연·전시장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



아시아 예술극장

문화전당 개관이 의의를 갖는 것은 광주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유명 도시들은 퐁피두센터(프랑스), 에스플러네이드(싱가포르), 구겐하임 뮤지엄 빌바오(스페인) 등 문화공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했다. 광주도 이들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문화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10여 년 공사를 거쳐 탄생한 문화전당은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 문화원 등 4개 신축공간과 기존 역사적 공간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5개 공간은 각각 공연장, 전시장을 갖추고 연구·창작기능을 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13만4815㎡(4만781평), 전체면적 16만1237㎡(4만8774평)에 달한다.

아시아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상호 문화예술을 교류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허브(Hub)'를 지향한다. 그래서 문화전당은 유럽 등 타 문화권과 달리 아시아의 의식주, 민속, 전설 등 아시아권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주로 다룬다. 아시아 문화 특화기관인 셈이다.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조 플랫폼을 지향하는 문화전당은 단순히 공연·전시장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 문화자원 연구·수집, 창제작·인력양성, 공연·전시, 자료축적·유통 기능이 상호 연계·순환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 개관축제는 지난 7월 광주U대회 기간에 프리 오픈을 시작으로 9월 초부터 3주 동안(9. 4~9. 21) 개관축제를 통해 대내·외에 알린다. 문화전당 핵심 콘텐츠를 선보일 개관축제는 5개원의 특성을 살려 진행된다. 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은 '아시아를 품은 빛의 숲'을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인 11월 25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성

####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시아 문화창조자들의 집 「문화창조원」

- 창의력, 기획력, 기술력을 갖춘 지역 및 국내외 창작자들이 교류하며 순수예술부터 첨단예술, 인문학에서 산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창·제작 스튜디오'
-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인종, 과학, 예술을 주제로 다채롭게 생산되는 융복합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전시문화를 선도하는 '복합전시관'

#### 제작 중심의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 허브 「예술극장」

-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을 체험하고 나아가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 무대와 관객석의 자유로운 변형은 작품의 규모와 장르를 넘나들고 공연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최고의 미적 체험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은 '아시아를 품은 빛의 숲'을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인 11월 25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10여 년 공사를 거쳐 탄생한 문화전당은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 문화원」 등 4개 신축공간과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구성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 학생 기념탑

#### 아시아 문화연구, 아카이브, 교육센터 「문화정보원」

- 아시아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한 저널, 포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생산 및 국내외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다층적 연구의 장을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 문화자원을 수집·관리·보존하여 전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복합적 지식 저장공간인 '라이브러리 파크'와 아시아 문화 포털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열람, 체험,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아시아문화자원센터'
- 장르와 경계를 허물고 문화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융합형의 창의적 문화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아시아문화아카데미'

####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기반의 어린이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플랫폼 「어린이 문화원」

- 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문화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다양한 테마 별로 창작활동을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 개발공간인 '어린이 체험관'
- 어린이 문화원의 콘텐츠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시연, 자료제작 등 양질의 창의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공간인 '어린이 콘텐츠 개발센터'

#### 아시아 문화교류·협력네트워크의 중심 「민주평화교류원」

-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18민주평화 기념관'
- 전당의 문화예술교류·협력을 이끌어 나가며 문화콘텐츠의 국제마케팅과 유통을 선도할 '문화교류 지원실'

문화창조원



어린이 문화원

# 전라북도, 국내 최초 벽지노선 대중교통서비스

전라북도(이하 전북)가 국내 최초로 기획·추진하고 있는 버스 DRT 시범사업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버스 DRT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보장과 산간오지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벽지노선 버스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북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정읍시 산내면 버스 DRT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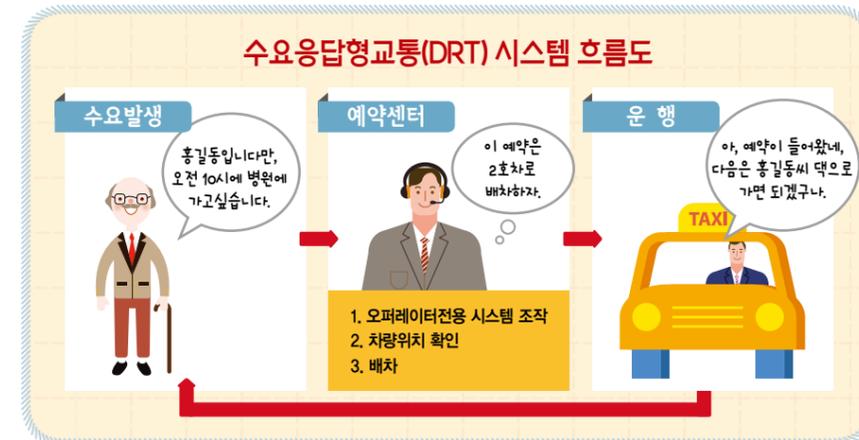


버스 DRT는 버스 이용수요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기존의 대형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바꿔 일정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콜방식의 예약제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콜버스'라고도 불린다



정읍시 산내면 버스 DRT 서비스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대중교통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맞춤형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버스 DRT는 버스 이용수요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기존의 대형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바꿔 일정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콜방식의 예약제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콜버스'라고도 불린다. 30분 전에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준 대중교통서비스이다.



###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로화를 위한 도전

도비 3억 원을 지원하여 정읍시 산내면은 15년 4월부터, 완주군 동상면은 15년 6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이용률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주군 동상면 버스 DRT 개통식

실제로 정읍시 산내면의 경우, 기존의 버스 이용객이 1일 평균 5명에 그쳤던 노선이 버스 DRT 시범운영 4개월 차인 현재 40명으로 크게 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가던 불편이 없어졌고 차량의 승차감도 좋아 시행 전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도 이용 후 편리함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자가용처럼 인식하거나 이용률 증가에 따른 운전자의 휴식시간 부족 등 시범사업 초기에 일부 미비점도 드러나고 있어 전북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DRT 운영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북 내 산간오지 대중교통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민선 6기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버스 DRT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를 활용한 DRT(수요응답형교통)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버스 미운영 마을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한 이중 재정지원의 문제와 신규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버스 DRT 사업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의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하는 방식, 즉 기존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하여 도로 폭의 협소 등으로 버스가 미 운영된 마을까지 교통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존의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하므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최적의 사업대상지역 선정과 환승에 대한 거부감 등은 또 다른 과제이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버스 재정지원의 부담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나 불편을 호소하던 지역주민들,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운수업체 등이 만족할 만한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버스 DRT 차량



버스 DRT 사업 행복택시



산간오지 대중교통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민선 6기 소외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버스 DRT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버스 DRT 시범사업

### 두 마리 토끼 잡는 통학택시

전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택시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학환경 개선 토론회”에 따르면 통학버스(택시)가 없는 학교의 지각·결석 비율은 21.4%이지만, 통학버스(택시)가 있는 초등학교의 지각·결석 비율은 2.3%로 통학 교통수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전북은 전북교육청 및 시군과 함께 통학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간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여 '15년 3월 2일부터 통학택시를 도내 전역에서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농어촌 학생 518명이 통학택시를 이용하여 등하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학 교통수단 지원으로 등하교의 편리함과 학업의 능률성 확보는 물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농어촌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선도하는 전북

대중교통의 정책 방향은 이제 투톱으로 가야 할 때다.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외의 경우 대중교통의 확충을 고민하는 정책이 맞지만, 승객이 2~3명인 농어촌지역의 경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찾아야 할 시기가 도래된 지 오래다. 전북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전라북도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 전라남도, 어르신들의 발 '100원 택시'로 전국의 교통복지 모델이 되다

농어촌과 섬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이하 전남)는 행정에서 보살펴 줘야 할 분야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2014년도 말 전남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인구의 20.1%인 38만4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남에는 6,650개의 마을이 있다. 이 중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이 316곳이나 된다. 이곳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장 보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어려운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0원 택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 군민 행복택시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의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100원에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태우고, 요금차액은 도비와 시·군비로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시책이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0원 택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시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시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에서 전국 최고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어르신들의 삶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싣고 달린다

어르신들이 읍·면 소재지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 가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보성군과 화순군에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범운영 결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필요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꼭 필요한 도민들만 이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11개 시·군 교통 오지마을 총 316곳 가운데 249개 마을에서(79%)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금년 5월 말까지 11만 2,483명의 도민이 이용해 하루 평균 75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을 파악한 결과 병원방문 37%, 시장 36%, 친인척 방문 4%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 방문, 시장 등 꼭 필요한 경우만 택시를 이용하고, 이용하는 도민끼리 함께 합승해, 예상했던 것보다 도나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 순천, 해남, 함평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희망하는 전 시·군



이낙연 지사 곡성군 현장방문



이낙연 지사 곡성군 현장방문

강진군 마을택시



곡성군 효도택시

으로 확대해 전국의 교통복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20일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100원 택시가 운행되는 곡성군 고달면 탑선마을과 목사동면 닭재마을을 직접 찾았다. 100원 택시에 탑승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과 시장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100원 택시가 운행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시책을 추진해 준 이낙연 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와 관련된 지역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100원 택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겁고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군에서도 공모사업 참여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현장 생생 인터뷰

#### 보성군 득량면 진천마을

노모 이장은 “예당리에 있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분들이 가장 좋아한다.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면 여러 차례 다리심을 해야 했다. 비용도 적게 내고, 시간도 절약하고 힘도 들지 않으니 1석 3조”라고 웃었다. 주민 강모 어르신은 “하루에 3번 택시가 온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새앙골

서모 어르신은 “면사무소나 농협, 복내마을에서 열리는 5일장을 찾아가갈 때마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제도가 생겨나서 주민들이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증촌마을

정모 어르신은 “그동안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자식들과 손자를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외지 출입을 못해서 제일 서럽고 눈물이 났다”며 “이제는 100원 택시를 태워 주니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행복해했다.

#### 완도군 백일도

박모 이장은 “노인분들은 소득도 없는데 병원에 갈 때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 번 이용하는데 왕복 3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이 아파도 참아버리고 하는데, 올해부터 100원 택시를 운영하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작년 12월,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100원 택시 사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군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 명칭과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조례에는 100원 택시 운영에 필요한 도 및 시·군 자체 계획수립 의무화 조항과 재정지원, 이용대상자 범위 및 이용요금, 규정 위반 시 지원 취소조항도 포함돼 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100원 택시 명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보성 ‘행복택시’, 곡성·화순 ‘효도택시’, 영광 ‘군민 행복택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는 100원만 받고, 그 밖의 요금은 현지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기해 기준을 정했다.

###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운영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 오지마을 주민이 택시를 불러 버스가 닿는 읍·면 소재지까지 시·군에서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주고 이용하고 있다. 택시 이용권은 마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마을운영위원회에 배부되고, 이용객이 지급한 100원 외의 택시요금은 도와 시·군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한다.

### 전국의 교통복지 모델로 확산

금년 말까지 100원 택시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군이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이용 편의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운행보상이 1회당 평균 1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100원 택시는 1회당 4,400원 정도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택시업체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사업성이 없는 버스노선을 줄이고 100원 택시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지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교통 오지 주민들이 교통복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사업성이 없는 버스 노선을 줄이고 100원 택시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지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정부30체험마당



화순군 효도택시

#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서울시내 촬영지로 떠나는 영화여행

대한민국 국민의 1/5,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관객 동원을 자랑하는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은 조스 웨던 감독의 대표적인 액션 SF영화로 2014년 4월 일부 장면이 서울에서 촬영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 속에서 서울의 명소들은 ‘어벤져스’와 ‘울트론’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디지털미디어의 집약체로 최첨단 미래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상암DMC, 아직도 철강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문래동 철강거리, 강남권 교통의 중심지이자 젊은이의 천국인 강남대로, 한강의 새로운 데이트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세빛섬까지. 지금부터 〈어벤져스2〉에서 등장한 서울촬영장소를 찾아 영화여행을 떠나보자.



세빛섬

## 코스1. 어벤져스와 울트론의 치열한 전투현장, 상암DMC

〈어벤져스2〉에서 상암은 영화 속 서울의 등장을 알린다. 어벤져스 멤버를 태운 전투기 ‘퀸제트’가 MBC 신사옥 앞 조형물(Square M communication)을 배경으로 비행하며, 이들의 서울 도착을 알린다. 이후, 월드컵북로(월드컵파크 5단지 사거리-6단지 사거리 300m 도로)에서는 달리는 트럭 위에서 울트론과 캡틴 아메리카의 전투가 벌어진다.

영화 속 정비된 모습과는 달리, 과거 상암은 쓰레기매립장이었다. 하지만 2002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한일월드컵을 개최하더니 지금은 DMC(Digital Media City)라 불리며 경의선, 공항철도, 6호선이 지나고 교통의 중심이 되었다.

현재는 569,925㎡(약 17만 2천 평) 규모의 대지에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과 한류열풍의 중심 문화산업까지 갖춘 지식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문화방송국
- 찾아가기 : 전철이동시간 15분(도보이동 15분 소요) 6호선 및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에서 약 900m 도보이동

## 주변 연계관광지

### 한국영화박물관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1900년대 초 원각사를 재현한 무성영화관부터 최근 영화 〈명량〉에 등장한 갑옷까지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1층
- 전화번호 : 02) 3153-2072
- 운영시간 : 10:00~19:00(화-금), 10:00~18:00(토, 일, 공휴일) 단,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2시까지 연장 개방함 (매주 월요일 휴관)
- 홈페이지 : www.koreafilm.or.kr/museum

### 디지털 파빌리온

‘디지털 파빌리온’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의 힘을 느낄 수 있다. 3층 ICT상상관에서는 최신 의류기기 및 디지털 생명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2층 ICT탐구관에서는 매시 10분, 40분마다 K-pop에 맞춰 춤을 추는 댄싱로봇 공연이 펼쳐진다.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전화번호 : 02) 2132-0500~2
- 운영시간 : 09:30~18:00(매주 일요일 휴관)
- 홈페이지 : www.digitalpavilion.kr



서울 영화 촬영장소

상암 DMC



한국영화 박물관



디지털 파빌리온



문래동 철강거리



**코스2. 쌍둥이 초능력 남매가 시민을 구한 문래동 철강거리**

문래동 철강거리는 영화 속 어벤저스와 울트론의 전철 전투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울트론과의 전투로 전철은 탈선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급박한 상황 중 쌍둥이 초능력 남매의 활약으로 가까스로 전철을 세워 시민들을 구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과거 문래동 철강거리는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심장이었다. 한때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MF와 제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대다수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30~40여 개 업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철강제품을 만들어 전국에 배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제2의 고향으로 남아있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주변
- 코스1에서 코스2로 찾아가기 : 약 1시간 소요(지하철 20분 + 도보이동 10분 소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 합정역(2호선 환승-4개역) → 문래역(3개역) → 문래역 7번 출구에서 약 800m 도보이동

문래 창작촌



**주변 연계관광지**

**문래 창작촌**

문래동 철강거리를 구경한 뒤, '문래 창작촌'으로의 예술여행을 추천한다. 대형망치와 용접면, 볼트와 너트로 만든 거리지도 등 철강용품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었고, 골목마다 예쁘게 그려진 벽화는 어두컴컴한 골목을 화사한 예술촌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매년 8월마다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올레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행사에서 진행되는 비디오아트 전시, 춤 추는 공장, 물레예술교육, 국제예술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만하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 홈페이지 : www.blogmoon.co.kr
- 전화번호 : (02) 2069-1667

**코스3. 블랙위도우의 오토바이 추격전, 강남대로**

<어벤저스2>에서 강남대로는 블랙위도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으로 울트론을 추격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블랙위도우의 오토바이 장면에서 강남대로와 주변 상점들은 익숙한 한국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영화에서는 골목길 정도로 등장했지만, 사실 강남대로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다양한 버스가 왕래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한국 최신 유행의 중심지다. 수많은 사람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리는 마치 패션쇼가 열린 듯한 착각이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을 보며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강남대로



강남대로에는 규칙적으로 검은 막대기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미디어 시설물인 '미디어폴'이다.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도로의 안내판 및 공공정보, 실시간 뉴스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전송하고, 밤에는 거리를 밝혀 내장된 CCTV로 안전하게 시민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한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2길
- 코스2에서 코스3으로 찾아가기 : 약 1시간 소요(지하철 45분 + 도보이동 15분 소요)  
2호선 문래역 → 강남역(13개역) 11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방향 약 270m 도보이동 → 강남대로 일리딘 중고서점 도착

**코스4. 닥터 헬렌 조의 유전자연구소, 세빛섬**

세빛섬은 <어벤저스2>에서 닥터 헬렌 조 역활의 '수현'이 근무하는 유전자연구소로 등장한다. 울트론이 헬렌 조를 세뇌시키고 자신의 분신인 안드로이드를 만든 장소가 세빛섬이다. 하지만 실제 세빛섬은 유전자연구소와 거리가 멀다.

세빛섬은 채빛섬, 솔빛섬, 가빛섬 등 총 세 개의 섬이 한강 위에 떠 있는 건축물로 최근 데이터코스 및 가족 나들이 장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세빛섬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즐기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념품 상점을 구경하는 여정은 반나절 나들이 코스로 손색이 없다. 낮에도 좋지만, 세빛섬은 밤에 와야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세빛섬의 조명은 N서울타워에 버금가는 화려한 야경을 선사한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 전화번호 : 1566-3433
- 운영시간 : 10:00~22:00(내부 영업장에 따라 다름), 외부는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somesevit.co.kr
- 코스3에서 코스4로 찾아가기 : 약 30분 소요(지하철 10분 + 버스 20분 소요)  
9호선 신논현역 → 고속터미널역(2개역) 6번 출구 → 세빛섬행 셔틀버스, 세빛섬 도착 (매일 11:00~22:00, 40분 간격으로 운행)

세빛섬



**주변 연계관광지**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쇼**

세빛섬 부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1,140m)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은은한 경관조명과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 분수의 향연이 펼쳐져 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여름 여행지로 제격이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 전화번호 : (02) 3780-0578
- 가동시간 : 12:00, 20:00, 20:30, 21:00(4~6, 9~10월), 휴일은 19:30 추가  
12:00, 20:00, 20:30, 21:00(7~8월), 휴일은 21:30 추가  
단, 1~3월은 분수를 가동하지 않음
- 홈페이지 : www.hangang.seoul.go.kr/park\_banpo

반포대교



# 남도에서 만난 특별한 가을여행



화순 이서적벽

고즈넉한 분위기에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던 감성이 깨어나는 가을.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이 계절에 오색 빛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인 전라남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 자연이 전하는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과 힘을 전해주는 산책길의 여유로움 그리고 상다리가 부러지는 남도음식의 맛깔스러움이 담겨있다. 올가을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지금 전라남도로 눈을 돌려 여행을 준비하자.

## 1. 화려하게 가을 옷 입은 남도 만나기

### 오색단풍, 장성 백암산

백암산 단풍은 30종의 수종이 40여 가지의 색을 낸다고 할 정도로 오색찬란하다. 또한, 총 5,000그루에 달하는 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3호), 굴거리나무숲(천연기념물 제91호), 고로쇠나무 등 난대성 상록수림이 있어 백암산의 절경은 으뜸이다. 백암사 입구에서 내장사로 가는 도로는 온 산이 붉게 타는 듯한 오색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적합하다.

 장성군 북하면 백암로 1239 백암사 ※백암단풍축제 2015. 11월 중  
TEL. (061) 392-7288(내장산 국립공원)

### 역새의 향연, 장흥 천관산

정남 쪽인 정남진 옆에 우뚝 솟은 천관산은 기암괴석과 역새밭, 바다를 옆에 낀 절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역새는 햇살 강도와 방향에 따라 하얀색이나 잿빛을 띤다. 가장 보기 좋은 흰색은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태양을 안고 바라보아야 그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산야를 하얗게 뒤덮은 천관산 역새를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 산을 즐겨보자.

 장흥군 관산읍 효자송길 169  
TEL. (061) 867-7075(천관산 도립공원) / travel.jangheung.go.kr

### 상사화 군락지, 영광 불갑산

9월 불갑산은 온통 붉은색이다. 일명 꽃무릇으로 잘 알려진 석산의 전국 최대 군락지가 바로 불갑산이기 때문이다. 불갑산에는 7월 말 진노랑상사화, 8월 초 상사화, 8월 중순 붉노랑상사화, 8월 말 백양꽃, 9월 중순 석산 등 5종이 차례대로 개화하여 가히 상사화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상사화의 참사랑이라는 꽃말처럼 진실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연인들의 답사지로 주목받고 있다.

장성 백암산



장흥 천관산



영광 불갑산





순천만

**i** 장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 TEL. (061)350-5769 / tour.yeonggwang.go.kr  
 ※불갑산 상사화 축제 : 2015. 9. 18 ~ 9. 20

**드넓은 갈대밭 생태관광지, 순천만**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드넓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보고이며 연안습지로서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이다. 천문대, 선상체형, 용산천망대, 순천문학관도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의 호응도 좋다.

**2. 남도의 자연을 벗 삼아 함께 걷기**

**담양 수목길**

사철 푸른 대나무 숲 죽녹원 그리고 대나무 숲만큼이나 아름다운 명품 숲길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관방제림 등을 둘러보는 코스이다. 또한, 죽향문화체험마을에서는 소재원, 명옥헌, 송강정 등 대표 정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한옥민박체험과 다도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다. 자연의 품속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즐겨보자.

**i** 8.1km를 걷는 문화생태탐방로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금월교→담양비행체험장→담양리조트

**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 산소길**

축령산(621.6m) 일대에는 4~50년생 편백과 삼나무 등 늘 푸른 상록수림대 1,148ha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독립기였던 춘원 임종국선생은 6·25동란으로 황폐해진 무입목지에 1966년부터 21여 년간 조림하고 가꾸어 지금은 전국최대조림 성공지로 손꼽히고 있다. 편백나무 숲은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는 피톤치드라는 특유한 향내음이 있어 심림육 최적의 장소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이다.

**i**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682, 서삼면 추암리 669, 북일면 문암리 500, 북일면 문암리 222 일원  
 숲 안내센터 061)393-1777~8  
 6.3km(3시간) : 금곡영화마을-금곡입구삼거리-치유의 숲 안내센터-추암마을-과정마을

**유시인의 정취, 화순 김삿갓길**

동북호는 폭 1km 정도의 늘씬한 S자 형태의 거대한 호수로 음유시인 김삿갓의 마지막 여생을 붙잡은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동북천 상류에는 경관이 웅장하고 수려한 화순적벽이 있



담양 수목길



장성 축령산



화순

다. 4개의 적벽 중 보산적벽, 노루목 적벽을 관람하는 적벽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적벽투어 후 김삿갓유적지와 연동리 숲정이를 둘러보자. 맑은 물과 울창한 숲으로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는 연동리 숲정이는 가을철 단풍이 들 때면 수면에 비친 숲정이가 장관을 이룬다.

**3. 오감이 즐거운 남도 가을 먹거리**

**전어구이**

“가을 전어에는 깨가 서 말”, “집 니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살이 오른 가을 전어의 맛을 최고로 치며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가을 전어 맛이 최고이다. 보성, 광양 등 남해안 일대에서 그 참 맛을 맛볼 수 있으며 전어를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로는 전어구이와 전어회, 전어회무침, 전어젓갈 등이 있다.

**벌교 꼬막정식**

벌교 꼬막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진미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벌교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막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간 해독은 물론 보양 음식으로 좋다.

**여수 간장게장**

여수를 느끼게 걸으며 명소를 관광하다 보면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친근한 차림표는 '게장백반'을 알리는 간판이다. 여수의 게장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게장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면 큰 오산이다. 너무 달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감칠맛 나는 개미 진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열기(熱氣)를 푼다고 되어 있는 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성도 좋고 담백하다.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장기의 어린이와 병의 회복기에 있는 사람, 허약 체질, 노약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일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고의 영양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이다.

**무안 낙지**

무안은 비가 오면 황토가 자연스럽게 갯벌로 흘러 자정작용을 한다. 당연히 뽕이 좋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 낙지가 싱싱하고 맛이 좋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낙지회, 낙지볶음, 낙지구이(낙지호통), 낙지초무침, 낙지연포탕 등 다양하다. 🍷



전어구이



꼬막정식



간장게장



낙지

# 지방감사시스템의 실태와 과제

현행 공공감사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부감사'는 '자체감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 기획감사실, 감사관 등이 시행한다. '외부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및 기타 중앙부처가 해당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상급자치단체로서 시·군·구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서 국회는 시도와 시군구에 대해서, 시도의회는 시군구에 대해서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감사결과)자료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에 초점을 두고 그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해 본다.



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1.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자체감사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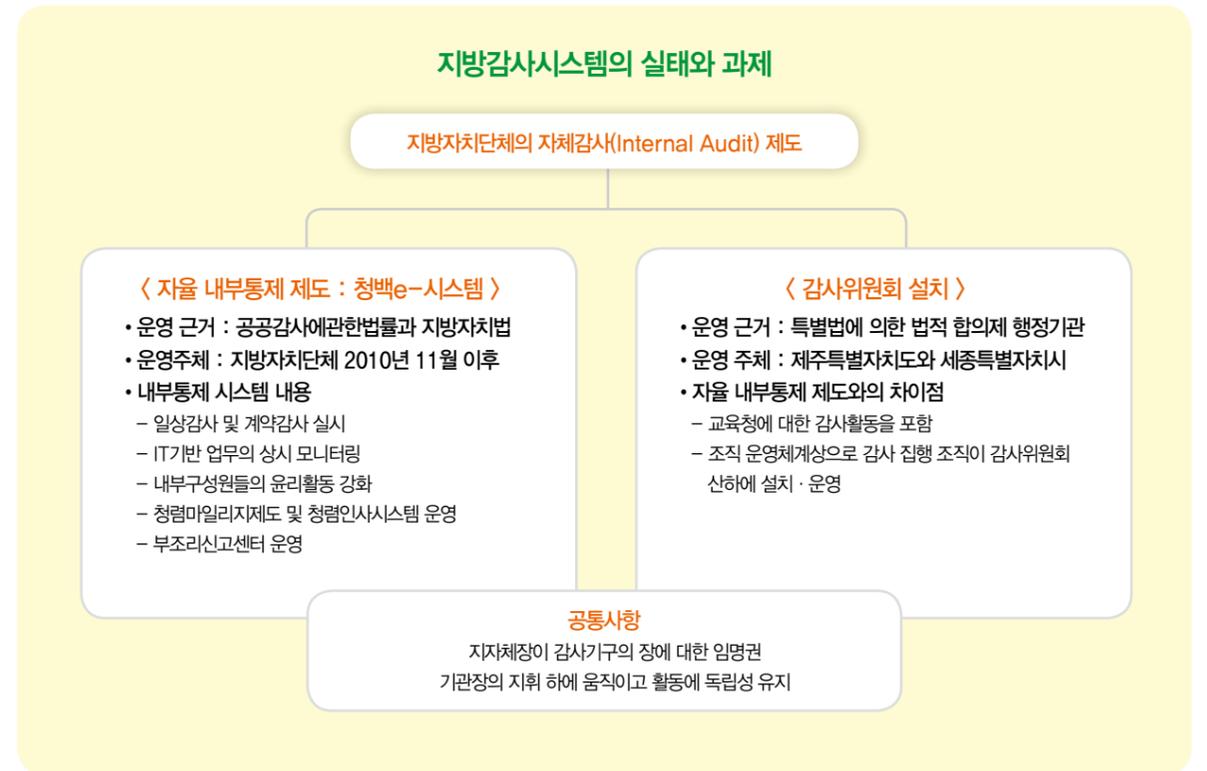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감사로서 '자체감사'(Internal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체감사제도의 경우도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과 지방자치법(제116조)에 근거하여 자체감사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로 각각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통한 자체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편적인 자체감사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2010년 10월부터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내부통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한 자체감사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공통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 IT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 내부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청렴마일리지제도 및 청렴인사 시스템 운영,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내부통제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가 2010년 11월부터 경기도 남양주·파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북도 안동·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부통제위원회(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또는 자체감사위원회(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의 내부통제 기준(가

## 지방감사시스템의 실태와 과제



이드라인) 및 세부지침과 내부통제 활동 평가 및 개선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보편적인 자체감사제도와는 다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8장(제66조~제71조)에, 세종시의 감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 활동을 한다.

감사위원회의 세부운영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또 다른 차이로는 조직 운영체계상으로 이 두 자치단체의 감사 집행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 운영방식이 공통적인 것은 자체감사 취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기관장의 지휘 하에 움직이고, 자체감사와 내부통제 활동에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과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글로벌 기준에 의하면,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의 생산성과 운영효과를 제대로 산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과제

-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 적발과 통제보다는 조직원의 성과와 역량강화를 통한 기관의 혁신적 성과관리에 중점**
  - 제주도와 세종시의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의 한계에 대한 검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와 관련한 합의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의 개선**
  - 제주도와 세종시의 설치·운영방식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
- **지방회계법안의 내부통제제도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자체감사제도의 중복 문제에 고민과 정책 대안 수립**

출하기 위해서 그 조직원을 비롯한 구성요소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관리경영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 적법성 등을 판단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즉, 적발과 통제 보다는 조직원의 성과와 역량강화를 통한 기관의 혁신적 성과관리(Innovative Performance)가 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회'는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가?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자체감사를 내부통제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고, 따라서 기관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더 강조하는 듯이 감사기구의 설치와 그 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 절차 등을 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자체감사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이외에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나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오히려 제6조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을 자문 역할과 감사활동

의 계획 및 수행 지시 기능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말하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합의 감사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주도와 세종시의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방식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방회계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하지만, 이외에도 이 법률안에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내부통제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 등을 활용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의 회계책임관을 지정해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일괄적으로 총괄관리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향하는 '자체감사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제도 설계를 담은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원칙과 방향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9월)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본래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대상기관, 짧은 감사 기간, 너무 많은 자료나 중복자료의 요구, 무차별한 증인출석 요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야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리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글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 과연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와 같은 국정감사의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정감사 외에도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부의 감사기관(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시민감사 등 수많은 감사가 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현행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관해 규정하는 근거 규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이다. 동법 제7조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이다.

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이다.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

### 현행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제도

- **감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기초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제외)**
  -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그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 **감사 범위 : 국가위임사무(단체 및 기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 **감사의 문제점**
  - 광범위한 대상기관, 짧은 감사기간, 너무 많은 자료와 중복자료의 요구, 무차별한 증인출석 요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 등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방향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폐지 주장**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를 모두 자치사무라고 볼 때 자치사무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감사 역시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권을 폐지하고 특정사항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활성화
- **국가위임사무에만 국정감사를 인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
  -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폐지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감사는 바람직하지 않음**
  - 주민, 지방의회, 자체감사, 중앙부처 장관, 감사원 등의 감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

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그밖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위임사무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치사무 중에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자치사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사무의 상당 부분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국정감사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즉 동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든 기관위임사무든 위임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나 자치사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임사무라고 할지라도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의 위임사무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도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정감사의 실시와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두고 있으며,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는데 두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나 기본원리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학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상급단위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나 현지성의 원칙과 유사해 보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권리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고,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헌장에 서명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미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기본법에 반영하고 있다.

####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의 방향

여기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제도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추상적인 원칙이므로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제도적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첫째, 지방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쨌든 없애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볼 때는 모두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국정감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권과 동시에 국정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의 차이는 일반사항인가, 특정사항인가, 이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의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방대한 조사기관과 대상을 짧은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권을 없애고 특정사무에 관한 조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면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에 대한 감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된다.

둘째, 국가위임사무에만 국정감사를 인정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인정하고 있다. 자치사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또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치사무는 어디까지나 지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사무이므로 재정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복감사의 폐단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수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주민, 지방의회, 자체감사, 중앙부처 장관,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통제될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는 이들 감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쟁점 및 대안



글 김홍환  
(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2013년 정부는 기초연금 확대, 영유아보육비 인상,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6%로 확대하여 11%로 하였고, 이와 함께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지하거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과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08년 국가 정책 목적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및 각종 공제·감면제도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납세 협력비용 등을 이유로 3년간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것이다.

해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산업단지를 싼값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관련 기업의 이익확대로 나타났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기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주인의 조세를 통해 조성하였기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그간 개인 소득세와 법인 세액의 10%를 부가하여 지방소득세로 걷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과 감면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되므로 급여생활자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에 대한 국세인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이 지방소득세 법인 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부담은 약 9,000억 원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에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세무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단체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기업단체의 주

장은 크게 두 가지로서 무분별한 세무조사, 중복조사 등이다. 첫째, 무분별한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재정난을 겪을 경우 세무조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지방기업의 활성화가 직접적 세수진작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앙정부에 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유인이 없다.

둘째, 중복조사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중복·이중 조사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와 같은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 미만이며, 3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1%에 불과하다. 즉, 법인의 대부분인 98%는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는 법인의 대부분은 은행, 금융, 대기업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재무·회계 등의 별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의 부담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1998년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0.65%, 법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전후 비교(법인기준)〉

세권	중전(부가세)		현행(독립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사업장 소재 각 지자체(특·광역시, 시·군 총 166개)					
과세체계	법인세액	10%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2억 이하	1%
				2~200억	2%
				200억 초과	2.2%
공제감면	국가정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혜택		해당 없음(세수 약 9,300억 증가) ※ 추후 조례로 지자체가 감면		
신고	납부로 신고 같음		사업장 소재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납부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납부		
조사	사실상 안분내역 등에 국한		세무조정내역(과세표준) 포함		



2.49%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에는 개인사업자 0.12%, 법인 0.91%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즉,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개인사업자 등은 1,000명 중에 1명, 대기업은 100개 기업 중 1개 기업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이해받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중복은 다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세청이 과표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업의 활동을 과세관청마다 다르게 보는 것이므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국세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경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국세청이 경정한 과표를 각 지자체가 받아들일도록 한다면 과세관청에 따라 과표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재정 확보수단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방세이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주민의 행태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및 과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공평과제 등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문제의 단순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증진활동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만약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



## 서울특별시 서울시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성장



서울특별시는 올 상반기 4개의 물재생센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2%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율 30% 대비 크게 증가한 것

이다. 생활 속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남 바이오가스 연료 열병합발전', '탄천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가동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가 확대됨에 따라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이 50%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물재생센터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서울시 시책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에 이바지하고,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인재 키우기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부산지역의 인재 양성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이전한 후 부산의 금융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 대학과 연계해 금융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동학술교류 등을 열고 있다.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연수과정은 학생들의 편입



요청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부산지역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부산국제금융연수원과 주택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품질 높은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첨단센서 인력양성 사업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가 첨단센서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력양성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센서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2021년 6월까지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센서 산업은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등에 접목해 제품과 서비스를 첨단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기술교류회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센서기술 아카데미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은 "사업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대구가 첨단센서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제42회 응진군민의 날 개최

제42회 응진군민의 날 행사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해 최고의 해양관광지 덕적도에서 개최된



다. 이번 행사는 섬으로 이루어진 응진군의 특성상 서로 만나기 어려운 7개면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1일에는 서포리해변 특설무대에서 전야제 행사로 군민노래자랑 등 문화공연이 열려 가을 밤의 낭만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응진군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용식이 전야제 진행을 맡아 더욱 즐거운 무대가 기대된다.

22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식전행사로 풍물놀이, 군악대 공연, 줄타기 공연 등이 열려 군민의 날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체육행사도 열려 응진군의 7개면이 서로의 체육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행사가 될 것이다.



## 세계 최대의 디자인축제 '2015 국제디자인총회' 개최

전세계 30여 개 국가의 세계 유명 디자이너와 디자인 관련 단체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디자인 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2015 국제디자인총회'가 2015년 10월 17일(토)부터 10월 23일(금)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5 국제디자인총회는 디자인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디자인단체 등이 모여 글로벌 이슈와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능동적으로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총회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 연사들의 강연과 더불어 전시회, 워크숍, 광주도시탐방 및 문화이벤트 등 참가자들의 흥미를 북돋을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2015 국제디자인총회 행사내용 및 참가 등록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http://www.2015id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중국경제교류 성과로 지역경제 새 바람 일으킨다

대전광역시가 관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대전상공회의소와 함께 관내 9개 기업과 중국 현지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기업 간(B2B) 투자상담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기업의 대전 투자 및 기업협력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의 기업들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자본투자, 합작공장, R&D센터 설립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교류회의 또 다른 성과는 중국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이다.

칭다오시 상무국은 내달 대전에서 개최되는 'WTA 하이테크 페어'에 하이얼그룹을 포함한 기업단 참여를 약속했으며, 대전상공회의소는 중국 청도시 국제상회청도상회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협의된 사항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본격화



울산광역시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 사업'은 기업의 IT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 및 성장 비즈니스 모델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지원 대상으로 하며, 울산광역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15년 9월 착수, 2016년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을 개발하여 인프라 서비스와 문서관리, 재무·회계, 인사·급여 등 범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지원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업단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개선 MOU 체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8월 7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와 '건강한 물 공급 및 상수도 운영 효

율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종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공급 시설물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 인력과 수도물 공급시스템의 조기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K-water는 48년간의 수도시설 건설과 운영관리로 축적한 노하우를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시설 안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양 기관은 앞으로 수도시설 인계·인수와 시설 운영 관리, 건강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물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선진 기술 공유·공동 연구개발, 수도시설 운영 관리 진단 및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착한 교복 입기'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명호 경기섬유연합회 회장과 함께 '착한 교복 입기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착한 교복 입기 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섬유소재를 활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디자인한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착한 교복 입기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섬유연합회는 교복디자인 개발과 기능성 섬유 소재를 저렴하게 교복에 활용토록 협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실수요자 참여 및 의견수렴 상호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교복 품평회' 개최와 11월에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품평회에서 논의

된 사항을 반영해 디자인한 시제품을 발표하는 '교복 패션쇼'도 개최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간 연정이 빚어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연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교복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섬유산업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 GANGWON PROVINCE 2018 세계자동차경주대회 본격 유치



강원도가 세계자동차경주대회(WRC)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강원도는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2018년

WRC 대회 유치를 위해 최문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RC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로 전 세계 13개국 코스를 1년 단위로 순회하며 순위를 내는 경기로 전 세계 188개 중계 채널과 6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전 세계적인 인기 종목이다.

강원도는 협약체결 이후 2018년 WRC 대회 유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SBS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일을 방문해 WRC 회장을 면담하고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와 SBS는 국내 유일 체류형 자동차 테마파크인 인제 스피디움을 활용해 자동차 튜닝전문단지를 조성해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랠리코스를 개발하여 인재지역을 세계적 모터스포츠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충청북도 세계 첫 유기농 올림픽, 2015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유기농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엑스포인 '2015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과산군 과산읍 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SOFAR(세계유기농업학회)·충청북도·과산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진정한 유기농 라이프를 오롯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행사장은 10대 주제전시관, 7대 야외전시관, 산업관, 유기농 의미(醫美)관, 다양한 체험 및 이벤트 등 유기농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주공연장에서는 1일 5회씩, 24일 동안 100여 회의 다양한 공연이 개최된다.

행사장 내에서는 메뚜기잡기와 우렁이 관찰 등의 자연생태학습과 10여 종의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체험관이 있다. 매일 2회씩 하늘과 땅의 유기농 동·식물 캐릭터들이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유기농 친구들 퍼레이드"는 엑스포 주요 볼거리 중 하나이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가꾸는 백악관 텃밭도 엿볼 수 있다.

충청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8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성식 넥스트글라스 대표이사, 다토 기디온 케이엘 매니지

## 충청남도 사상 첫 말레이시아 투자 유치 '쾌거'

충청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8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성식 넥스트글라스 대표이사, 다토 기디온 케이엘 매니지



먼트 최고투자자, 서철모 천안부시장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넥스트 글라스는 2019년까지

모두 220억 원을 투자해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2만 7,138㎡의 부지에 '스마트 글라스'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스마트 글라스는 유리에 여러 장의 특수필름을 붙여 만든 첨단 소재로, 방음·열 차단·가리개 등의 기능이 있어 백화점 쇼윈도나 건축 외장재, 창호, 차량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합작법인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내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매출 2,400억 원, 직접고용 100명, 생산유발 4,000억 원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말레이시아와 충남의 첫 투자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스마트 글라스 분야 세계 최고 기술 및 생산 기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연구개발특구' 본격 가동!

전라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13일 지정한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이날 관련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특구운영을 시작했다. 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의 국립 및 정부 출연연구소, 첨단기술기업 등은 각종 세제 혜택과 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번 특구 가동으로 농생명, 탄소 등 융복합 소재 관련 기업의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출범시키고, 특구 내 기술탐색 및 이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에 사업화촉진지구 1만275

km<sup>2</sup>를 비롯하여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천518km<sup>2</sup>,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천542km<sup>2</sup> 등 모두 1만6천335km<sup>2</sup>에 조성된다.



###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본격추진

전라남도는 현 정부 대선 공약인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총 602억 원의 예산 확정으로 내년에 착공한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이 기존 범용 화학소재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의 핵심권역으로의 질적 전환을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세풍산업단지에 부지 4천 250㎡, 건축 1천 856㎡ 규모로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화 연구개발(R&D) 등 1단계 사업이 시작되며, 이 사업은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화 R&D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클러스터에 조성되는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연구소(가칭)는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핵심 R&D 기술 및 실증화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국내외 많은 화학소재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화학소재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복70년·분단70년 맞아 통일전 참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맞아 광복절

을 앞둔 8월 7일 올해를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일공감 분위기를 앞장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주에 있는 통일전(統一殿)을 참배 후 '통일공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차원의 통일준비는 3+3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전략에 △남북 교류협력 기금 확대 △남북 교류협력 100인 네트워크 구축 △남북 독도·실�크로드 파트너십 추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3대 전략에는 △'통일서원제' 국가행사 격상 △통일공감 포럼 운영 △통일공감 아카데미 가동 등이다.



### 경남관광길잡이, 사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시행

경상남도는 경남관광길잡이(www.gntour.com)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버전인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하여 8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온라인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4개 국 언어로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로 경남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경남을 여행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남관광길잡이로 검색할 수 있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기

존에 'ActiveX'를 설치해야만 볼 수 있었던 관광지도, 동영상 등의 서비스 등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수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경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면서,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더욱 질 높은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여행 만족도 '씩씩이'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에서 여행평가 부문 3대 중점분야인 전반적 만족도(4.33), 재방문 의향(4.31), 타인추천 의향(4.33)에서 각각 강원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으며, 항목별 만족도에서 자연경관, 문화유산, 식당 및 음식, 쇼핑,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관광지 편의시설, 관광종사자 친절성, 체험프로그램, 관광지 혼잡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2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전국 최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쇼핑 분야(4위→1위), 관광종사자 친절성(2위→1위), 체험프로그램(4위→1위) 등 다소 처졌던 분야에서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결과로 제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지임이 재확인됐으며, 이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과 관광사업자들의 공감과 인식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행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 메르스, 오우커들의 발길을 돌리다

## 메르스 사태로 본 중국인들의 한국 비자신청 분석



글 심영민  
(협의회 중국 사무소 서기관)

화마(火魔)처럼 찾아온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사태. 대한민국 전역은 메르스로 인해 한동안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마비시키며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한동안 호황을 누리던 관광 산업도 메르스 여파의 직격탄을 맞으며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관광객(오우커)들이 메르스 공포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중국인들의 한국 비자신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자.

### I. 한중 관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3일 수교한 이래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교 당시인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1,453억 달러로 53.8배 증가했고, 대 중국 수입은 37억 달러에서 901억 달러로 24.4배 증가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지난 22년간 36.9배 증가했다.

인적교류 또한 지난해 말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995년 70.8만 명에서 지난해 1,030.9만 명으로 약 1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밀접하고 상호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다.



### II. 메르스 발생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월 26일 현재까지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6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다. 처음 메르스가 발생하고 “치사율이 높다.”, “환자의 이동 경로 파악이 안 된다.” 등의 언론 기사는 물론, 학교 휴교령, 유명 대형병원의 환자 발생 등에 따라 중국인들의 위기감은 대단했다. 특히, 2002~2003년까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로 5,000여 명이 감염되어 34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경험한 중국인들에게는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 8월 26일 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현황

(단위 : 명)

치료 중		퇴원	사망	확진	격리 해제
안정적	불안정	140	36	186	16,693
7	3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화장치) 등 사용

(자료 : 질병관리본부)





### III. 중국인의 한국행 비자발급 건수 급감

지난해 한·중간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금년도에도 비자발급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메르스가 발생하고도 6월 첫 주까지는 5.5%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감소하기는 했어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6월 둘째 주는 전년 동기 71,261건에서 16,834건으로 76.4%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6월 넷째 주에는 전년 동기 78,640건에서 8,214건으로 89.6%가 감소했다.

특히, 동기간 단체 비자 건수는 46,160건에서 139건으로 무려 99.7%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장들의 노력 끝에 7월부터는 조금씩 감소폭이 축소되어 7월 넷째 주에는 전년대비 약 30%까지 회복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기별 비자발급 건수

구분	6월 1주			6월 2주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비자발급건수 (단체비자)	51,895 (27,865)	54,749 (27,603)	5.5 (-0.9)	71,261 (38,548)	16,834 (2,276)	-76.4 (-94.1)

구분	6월 4주			7월 4주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비자발급건수 (단체비자)	78,640 (46,160)	8,214 (139)	-89.6 (-99.7)	91,672 (59,843)	25,091 (8,122)	-72.6 (-86.4)

(자료 : 질병관리본부)



### IV.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우선,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1인당 미화 15불 상당)를 3개월간(7.6~9.30) 면제, 둘째,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15. 3. 1~6. 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셋째, 일본 단체 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한국은 이제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홍보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원희룡 제주지사가 7월 베이징과 8월 상하이를 방문해 여행사 대표, 항공사 대표 등을 만났고, 남경필 경



기도지사는 홍콩의 유명 방송매체인 '봉황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가 종식되어 안전한 한국으로의 관광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7월 최문순 강원지사가 광주, 8월 박원순 서울시장,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우한과 상하이로 각각 방문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여행을 홍보하며 관광산업의 메르스 사태 극복에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V.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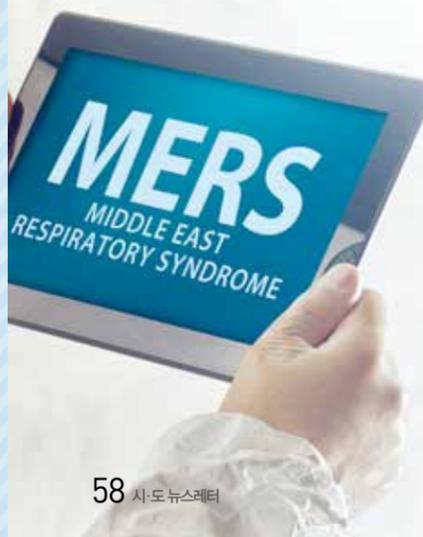
이제는 국제교류도 지방화 시대가 아닌가 싶다.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유치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은 국제교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세계 각국의 1,395개 지방정부와 체결한 자매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강화되어 갈 것이다.

#### 자매 및 우호교류 체결 현황

구분	한국자치단체수	외국국가	외국도시
계	232	119	1,394
광역	16	59	365
기초	216	60	1,029

(자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5. 8월)



# 냉엄한 국제정치와 우리의 안보전략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 시대를 맞아 2개의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아·태 지역으로의 재 균형정책을 선언한 미국은 중국에게 G2에 의한 세계질서를 제의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중국은 기존질서의 공동주주로서 협력하는 구조다.



글 박동선  
(現 APEC 국제교육협력원장  
現 부산대학교 초빙교수)

신흥 강대국인 중국은 G2에 반대하고 C2를 선호한다. 중국의 C2는 협조, 협력하는 2개의 운명 공동체를 의미한다. 중국은 2개의 도련선(島鏈線)을 분계선으로 태평양을 양분하자는 것이다. 서 태평양은 중국이, 동 태평양은 미국이 주도하는 2개의 운명공동체를 운영하는 구상이다. 중국은 미·중 간에 신형대국관계(新形大國關係)가 필요하다면서 일종의 천하양분지계(天下兩分之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1도련선은 일본열도-오키나와-필리핀-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을 잇는 선이고, 제2도련선은 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중국은 우선 제1도련선 안쪽으로는 적대세력 접근을 금지하고 격퇴한다는 A2/AD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수인 미국은 기존 해양질서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도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A2/AD전략에 대응하여 2012년1월 신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21세기 세계패권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G2 구상과 C2 구상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냉엄한 국제정치는 일반상식이나 국민감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정치의 역설적인 정론 몇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존 방안을 분석해 보자.

**첫째, 흔히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

**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선 “이웃나라가 위협이며, 가까울수록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타니샤 파잘이라는 국제정치학자는 국가의 멸망을 연구했다. 그녀는 1816년부터 2000년까지 207개의 나라가 생존하다가, 66개국 멸망했는데, 그중 50개 국가가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보다 안전한 안보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있을 수 있으나, 태평양 건너의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상 최선의 선택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우리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역으로 한·미 동맹이 해체되는 순간, 우리는 주변국들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악한 편 보다는 강한 편에 서야 이득이다”가 상식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악한 편과 힘을 합쳐 강한 편을 견제해야 안보에 유리하다”고 가르친다. 즉, 균형정책이 편승정책보다 상책이라는 것이다. 편승정책은 강한 세력에 굴종하는 정책으로서 독립을 잃을 우려가 있으나 균형정책은 독립과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국력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만일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예언처럼, 머지않아 중국이 고속성장을 멈추고, 일본이 아시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국들은 일본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일본은 최대약점이 천연자원 부족이기 때문에 자원 수입항로인 호르무스 해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모두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본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대중국 균형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선을 지키기 위함이다. 일본은 편승정책보다 균형정책이 유리함을 알고 있다.

**셋째, “역사를 잊지 말라. 원수를 잊지 말라”가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가르친다. 이는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기에 더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다. 미국의 국무인 조지 워싱턴도 “누구를 영원한 나쁜 나라, 누구를 영원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아매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 적국이었던 일본과 이제는



동맹관계다. 철천지원수였던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은 미국의 변신이 놀랍다.

더욱 놀라운 건 2차대전 시 원자탄 공격으로 자국을 패망시킨 미국을 동맹으로 삼은 일본이다. 일본은 진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잊고, 그 때의 원수를 잊었던 말인가. 무서운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과거의 불공대전의 원수인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자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정세 변화에 그만큼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과거 통한의 역사를 극복하고, 필요 시에는 어떤 나라와도 손잡을 수 있는 국제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 4대강국 뿐 아니라 핵무장한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가 냉엄한 국제정치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화를 열망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이 상식이며, 일반**

**정서에도 맞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전쟁에 대비해야 평화가 온다”는 역설을 가르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도리어 전쟁의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대 북한 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다.

최근 북한 목함 지뢰 도발이후 전개된 비상사태에서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고 온 국민이 단결함으로써 북측과 8.25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한·미 연합 작전이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 시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방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중국도 우리를 지지했다.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지칭하는 “각방(各方)”이 아닌, 북한만을 지칭하는 “유관방면(有關方面)”의 도발 자체를 촉구했다. 이와 같이 고립무원이 된 북한은 타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미·중의 협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통일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일본 천년고도 ‘교토부’, 한국과의 만남을 시작하다

‘일본 전통의 진정한 속살을 들여다보려면 교토로 가라’라는 말이 있다.  
일본 교토부는 일본의 천년고도로 일본 전통문화의 진정한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지자체와의 교류는 미흡했다. 최근 들어 일본 문화의 시작점인 교토부가 한국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한국 지자체와 교토부의 만남, 그 첫걸음 속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자.



## 일본 속의 일본 ‘교토(京都)’

교토부(京都府)는 일본의 옛 수도로서, 아직도 전통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교토부는 일본열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613.21㎢, 인구는 263만 명 정도이다.

또한, 현재 교토부의 야마다 케이지(山田啓二)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교토부는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여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어떠한 지자체보다도 세계와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교토부의 국제화 ‘내일의 국제교류추진 플랜’

교토부의 국제교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내일의 국제교류추진 플랜’이다. 플랜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 ① 교토와 세계 여러 지역과 (인연) 만들기이다. 교토와 자매/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해외 지자체(중국 북경시, 대련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등) 이외에도 교토와 인연이 있는 여러 지역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가지는 것이다.
- ②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교토 지역 만들기이다. 유학생, 연구자들이 교토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미 와 있는 유학생, 연구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 ③ 세계에서 활약하는 국제파 교토 인재 육성이다. 교토의 청소년들에게 유학생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등, 미래 세대가 국제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 ④ 지역과 연계한 국제교류 추진 체계 구축이다. 교토부가 지향하는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토부국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만들어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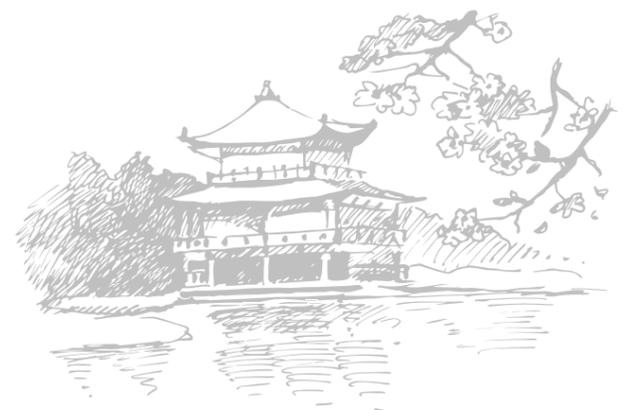
## 한국과 교토와의 교류는 이제 시작!!

교토부는 아직까지 한국의 특정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교토부 간의 교류는 최근 2~3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하나하나 그 성과를 거두어 가는 중이다. 말하자면 한국과 교토부 간의 교류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2012년 8월 포항시와 교토부는 포항시, 교토부, 마이즈루시(舞鶴市 교토부 북쪽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페리 정기항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양 도시 간의 사회, 문화, 관광,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해당 국제 페리 정기항로는 현재 개설되지는 않았으나 개설을 목표로 현재 시험 운항 중이다.

또한, 얼마 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천년고도 경주와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를 방문하는 ‘한일 천년고도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풀어야 할 역사적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자체 간 교류는 다방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상호 간의 활발한 교류는 분명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고 깊게 만들 것이다. 교토는 이제 한국과의 빈번한 교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러한 교토의 노력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될 것이다. 🌟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글 임혜경(협의회 교류지원부 주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를 맞은 본 공모전은 해마다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초기에는 인적교류와 행정교류 위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지역자원을 창의적으로 국제교류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 및 경제교류 등으로 확대 추진되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는 부산 사하구가 "문화예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창조도시 사하"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충청북도와 전북 남원시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경남 창원군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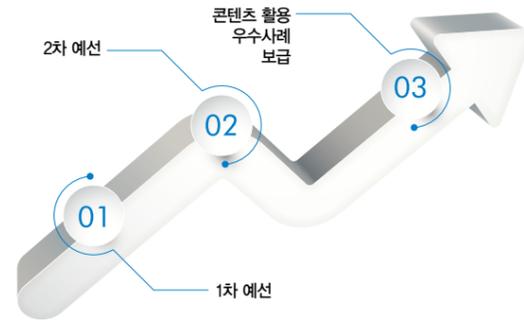
## 2015년도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현황

구분	지자체	과제명
최우수상	부산 사하구	문화예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창조도시 사하
우수상	충청북도	충북 오송에서 K-뷰티의 지평을 열다 -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사례
	전북 남원시	춘향골의 전통문화상품으로 중국을 흡수하다 - 남원시에서 치러지는 중국 항주시민 전통혼례식
장려상	대전광역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경상남도	에볼라 출혈열도 이겨낸 아프리카 신규 우호교류
	경남 창원군	줄다리기로 시작된 교류의 끈, 행정 및 청소년 스포츠교류로 확대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예선에 제출된 원고 중 서면심사를 거쳐 총 6건의 결선 진출작을 선정하고, 2차 프레젠테이션 결선에서 추진과정, 교류성과, 파급효과,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단체에는 협의회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주어진다.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국제화 우수사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에 게재하고, 협의회 월간지 및 이메일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과 국제교류관계관 연찬회, 국제교류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 등의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각 지자체로 전파되어 입상 지자체의 국제화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매년 2월 예선작 접수를 시작하여 5월경에 예선 심사가 치러지며, 최종 우수사례를 선발하는 결선은 6월경에 시행



- 01. 심사 절차**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원고 사전심사 총 6건 진출작 선정
- 02. 심사 절차**  
6개 결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 교류성과, 파급효과,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작 최종 선정
- 03. 지자체 상호 벤치마케팅 기회 제공**  
  - 선정된 우수사례를 244개 지자체에 책자로 송부, 워크숍 아카데미 교육 홈페이지, 이메일 뉴스레터 등에 다양하게 활용
  -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창구로 협의회 역할 확립

된다.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최근 3년 내 추진한 국제화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매년 그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는 모집요강 및 수상작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례를 공모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단단히 다져온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2차, 3차 효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힘쓰는 분야가 바로 국제교류·국제화사업 분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 분야 중 수치화 및 가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국제화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어 국제화사업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업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대회 요강

<b>참가대상</b>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
<b>공모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을 통해 외국 지자체와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시킨 사례</li> <li>• 문화·예술·스포츠·청소년·인적교류 활동으로 지방 행정 선진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한 사례</li> <li>• 관내 외국자본을 투자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생산유발,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한 사례</li> <li>• 국제행사·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 사례</li> </ul>
<b>사례 대상 시점</b>	최근 3년 내 추진한 지방의 국제화 사례
<b>원고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량 : 특정한 제한은 없으나 A4 용지 15매 내외의 적정분량권고(사진 도표 등 참고자료 포함 가능)</li> <li>• S/W : 한글 2007 또는 2010</li> <li>• 규격 : 신명조 13호, 줄간격 : 160%, 여백(상 : 25, 좌우하 : 20)</li> </ul>
<b>심사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 6명(국제교류전문가 4명, 협의회국제화지원실장 외 1명)</li> <li>• 예선심사 :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원고를 심사 후 총 6건의 선정</li> <li>• 결선심사 : 6개 결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추진과정, 교류성과, 파급효과,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작 최종 선정</li> </ul>
<b>시 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6개 자치단체</li> <li>- 최우수상(1) : 협의회장 상장 및 상금 300만 원</li> <li>- 우수상(2) : 협의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0만 원</li> <li>- 장려상(3) : 협의회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li> </ul>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한중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 개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중국 연변주 룡징시에서 「한중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가 개최되었다. 본 친선 경기는 한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주관하고 중국 삼성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수석은 양국 간의 폭넓은 인문교류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이번 친선 경기는 지방 간의 교류사업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교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친선 경기가 열리는 연변주는 축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며, 그 인기의 중심에는 현재 연변FC를 이끌고 있는 한국인 박태하 감독이 있다.

「한중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친선 경기」에는 한국 13개 시도 24개 팀, 중국 9개 省市 24개 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경기 운영은 6개 팀을 1개 조로 편성하여 8개 조를 구성한 후, 조 내 승률 1, 2위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상위 16개 팀이 경기를 통해,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을 확정했으며, 그 결과, 우승은 울산광역시 학성 중학교, 준우승은 인천광역시 광성중학교가 차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성환 사무총장은 이번 친선 경기가 양국 청소년 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교류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즐거운 축제의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제5기 해단식 및 제6기 발대식 개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지방분권 대학생 SNS 홍보단 5기 해단식 및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단식에서는 5기 학생들의 조별 홍보 프로젝트 추진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활동을 바탕으로 우수조 시상과 우수 활동자 시상을 진행했다.

5기 발대식에서는 협의회 김홍환 위원의 '재정분권의 의의와 방향', 김수연 위원의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조별 미션과제 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학생 SNS 홍보단은 쌍방향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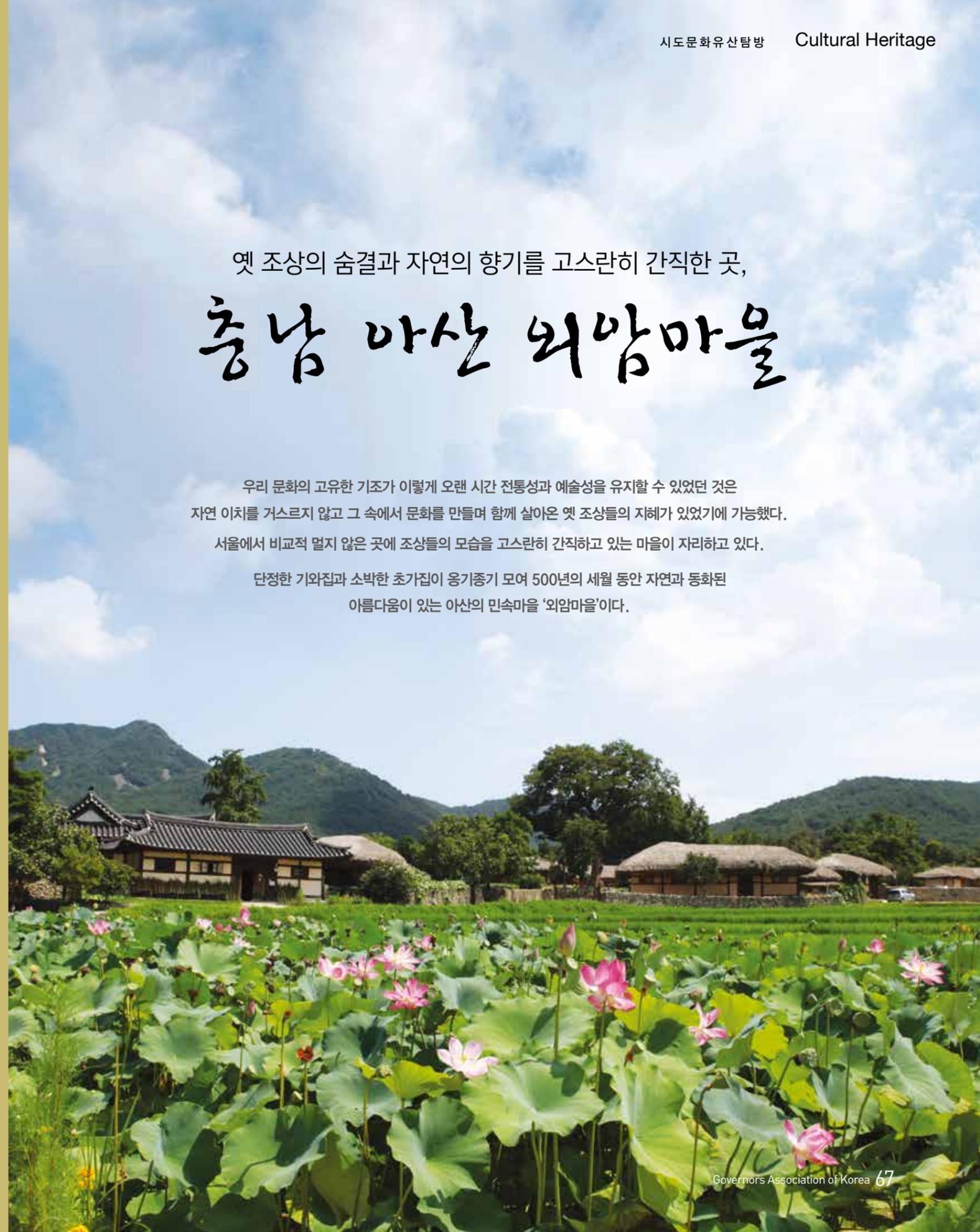
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대학생 선별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로 앞으로 약 4개월간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옛 조상의 숨결과 자연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충남 아산 외암마을**

우리 문화의 고유한 기조가 이렇게 오랜 시간 전통성과 예술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함께 살아온 옛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조상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단정한 기와집과 소박한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 500년의 세월 동안 자연과 동화된 아름다움이 있는 아산의 민속마을 '외암마을'이다.





- ❶ 외암마을 입구
- ❷ 600년 묵은 느티나무
- ❸ 설화산
- ❹ 마을장승



### 조상의 숨결과 자연의 향기를 머금다

외암마을은 설화산 자락을 병풍 삼아 기와집과 초가집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예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한 민속마을이다. 설화산을 등지고 반대편에 위치한 맹사성 고택이 있는 중리마을과 함께 약 5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외암마을은 조선 명종 때 예안 이씨가 정착한 후 점차 그 후손이 번창하고 인재를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안 이씨 집성촌이 됐다. 마을 이름인 '외암'은 조선 경종 때의 뛰어난 성리학자인 이간(李柬)선생의 호에서 따왔다. 현재도 마을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전통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마을로 접어드는 곳에 비교적 큰 개울을 건너는데 이곳이 마을의 초입 표시가 된다. 다리를 건너면 물레방아와 마을 장승이 오는 이를 맞이한다. 다리 아래 연자방아 앞 반석(盤石)에는 이용찬이 썼다는 외암동천(巍岩洞天)과 이백선이 썼다는 동화수석(東華水石)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산세 좋고 살기 좋은 외암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600년 묵은 커다란 느티나무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예스러운 마을 정취에 시선을 빼앗긴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운 돌담길과 길 따라 자리 잡은 정갈한 분위기의 옛 가옥들은 금방이라도 옛 조상들이 나와 반겨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외암마을은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조선시대 중요 문화재이다. 마을에는 건재 고택, 참판댁, 송화댁 등의 고택들과 80여 채의 초가가 조화를 이루며 옛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양반집인 고택은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으며, 넓은 마당과 특색 있는 정원이 당시 양반의 생활상과 풍류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초가 역시 고풍스러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돌담으로 연결된 골목길과 주변의

건재 고택



울창한 수림이 마을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 옛 정취를 오롯이 간직한 돌담길을 걷다

외암마을은 잘 보존된 마을의 모습 때문인지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취화선>, <태극기 휘날리며>, <클래식> 등 수많은 작품이 외암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중 <취화선>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해 그림 같은 정원을 자랑했던 '건재 고택'은 외암마을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꼭 들리는 고택이다. 영암군수를 지낸 이상익이 살았다 하여 택호 '영암택'으로도 불린다.

건재 고택은 대한민국 100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정원과 아름다운 돌담으로 유명한데 이중 건재 고택 돌담은 외암마을의 백미로 손꼽힌다. 높게 자란 고목이 고택의 담장 밖으로 팔을 뻗어 마치 돌담 숲을 연상시킨다. 누구든 이 길을 지날 때면 절로 걸음을 멈추고 돌담에 기대 한참을 바라보게 된다. 건재 고택은 출입이 제한되어 고택 안 정원을 구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운치 있는 돌담은 정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준다.

건재 고택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옛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길고 긴 돌담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6km에 달하는 돌담길은 순천 낙안읍성의 그것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돌담길로 손꼽힌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온몸에 두르고 논길을 걷듯 느긋한 마음으로 걷고 나면 마치 수백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가 한데 어우러져, 500년 세월 동안 가장 한국적인 멋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아산 외암마을.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인들이 이곳을 찾아 옛 조상의 숨결과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

- ❶ 참판댁
- ❷ 감찰댁
- ❸ 풍덕댁
- ❹ 물레방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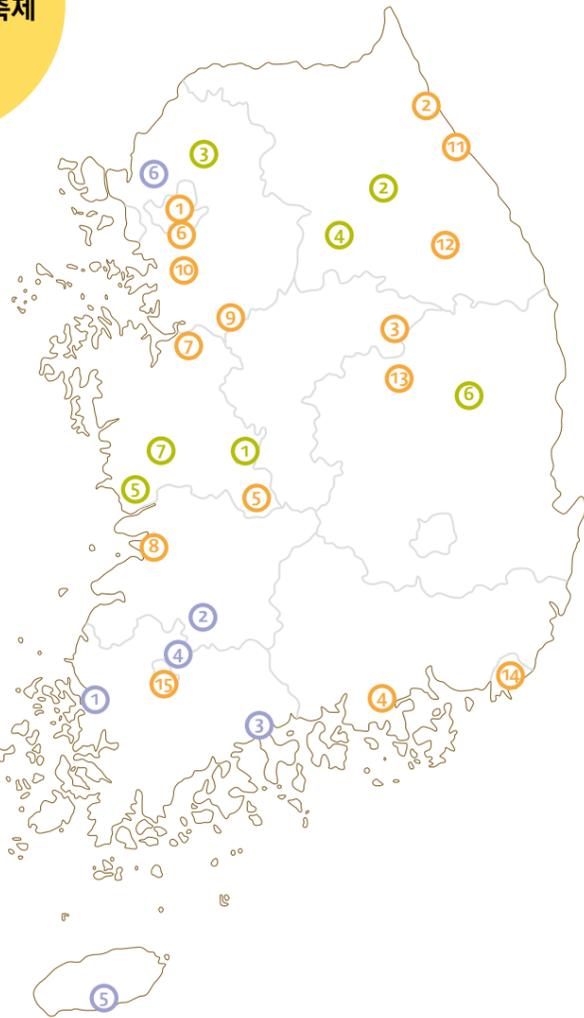
돌담길



# 가을의 정취 따라 시도의 맛과 멋을 즐기는 가을축제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 한층 높아지고 푸르게 변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한다. 낭만과 사색으로 대변되는 가을이지만 그래도 가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오색 빛으로 물든 가을 풍경과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먹거리가 아닐까. 시도뉴스레터 가을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가을의 멋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가을축제 소식을 준비했다.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전국 시도의 가을축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가을여행 지침서, 대한민국 가을축제 로드맵



### 9월 축제

- ① 대전국제와인페어 | 9. 3 ~ 9. 6
- ② 평창효석문화제 | 9. 4 ~ 9. 13
- ③ 광릉 숲 축제 | 9. 5 ~ 9. 6
- ④ 원주한지문화제 | 9. 10 ~ 9. 13
- ⑤ 서천 홍원향 전어·꽃게 축제 | 9. 12 ~ 9. 25
- ⑥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 9. 25 ~ 10. 4
- ⑦ 충남 백제문화제 | 9. 26 ~ 10. 4

### 10월 축제

- ① 하이서울페스티벌 | 10. 1 ~ 10. 4
- ② 양양송이축제 | 10. 1 ~ 10. 4
- ③ 단양온달문화축제 | 10. 1 ~ 10. 4
- ④ 진주남강유등축제 | 10. 1 ~ 10. 11
- ⑤ 금산인삼축제 | 10. 2 ~ 10. 11
- ⑥ 서울세계불꽃축제 | 10. 3 ~ 10. 3
- ⑦ 천안흥타령축제 | 10. 7 ~ 10. 11
- ⑧ 김제지평선축제 | 10. 7 ~ 10. 11
- ⑨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 10. 7 ~ 10. 11
- ⑩ 수원화성문화제 | 10. 8 ~ 10. 11
- ⑪ 강릉 커피축제 | 10. 8 ~ 10. 11
- ⑫ 정선아리랑 | 10. 9 ~ 10. 12
- ⑬ 예천세계갈매축제 | 10. 15 ~ 10. 18
- ⑭ 부산불꽃축제 | 10. 23 ~ 10. 24
- ⑮ 광주세계김치축제 | 10. 24 ~ 10. 28

### 11월 축제

- ①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 10. 23 ~ 11. 8
- ② 순창장류축제 | 10. 29 ~ 11. 1
- ③ 순천만갈매축제 | 11. 6 ~ 11. 8
- ④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11. 12 ~ 11. 14
- ⑤ 제주최남단방어축제 | 11. 12 ~ 11. 15
- ⑥ 파주장단공축제 | 11. 20 ~ 11. 22

가을축제, 이곳을 주목하라!

9월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제격이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들이 온전히 전승되어 온 안동의 문화를 답사하고 문화유산의 가치 속에서 정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고,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이 어우러져 태극처럼 조화롭게 구성된 축제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어릿광대의 꿈'을 주제로 국내외의 다양한 탈춤을 즐기는 탈춤공연, 전 세계 100여 개국 3,000여 점의 탈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 탈 전시회, 안동의 문화유산이자 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남성 대동놀이 차전놀이와 여성대동놀이 늦다리 밟기 등 다양한 공연·전시·체험이 한 데 어우러져 축제 한마당을 이룬다.

세계보편문화 탈을 만들고, 탈을 쓰고, 탈춤을 출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올가을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이곳을 찾아 신명나는 탈춤의 매력 속에 한번 빠져보자.

장소 | 경북 안동시 탈춤공원, 하회마을 일원

기간 | 9월 25일 ~ 10월 4일



### 백제문화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축제, 제61회 백제문화제가 충남 부여와 공주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백제문화제는 1955년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국제행사인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축제 및 세계 명품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백제문화제는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9월 26일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개막 팡파르를 시작으로 9일간 부여와 공주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이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이 눈길을 끈다. 금강교와 미르섬 등 금강신관공원을 주 무대로 수백만 개의 LED 조명과 황포돛배를 비롯한 유등으로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실경 공연은 공산성과 금강 그리고 백제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고즈넉한 가을, 부여와 공주로 떠나 백제인의 멋스러움과 얼이 담겨 있는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장소 | 충남 공주시 및 부여군 일원

기간 | 9월 26일 ~ 10월 4일



가을축제, 이곳을 주목하라! 10월

진주남강유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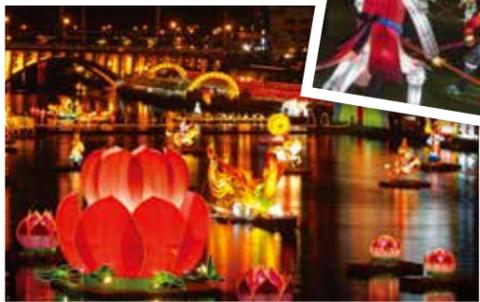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12만 왜군에 의해 진주성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통한의 '계사순의'가 있고 난 뒤부터는 오직 나라와 겨레를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쳐 순절한 7만 병사와 사민(士民)의 매운 얼과 뉘를 기리는 행사로 세세연년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시민등 거리행렬을 따라 초혼점등을 지켜보며, 유서 깊은 천 년의 강변에서 수상 불꽃놀이와 함께 아름다운 유등을 직접 감상하고, 등에 얹힌 역사적인 이야기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교감할 수 있는 다양화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성을 배경으로 소망이 담긴 유등의 빛을 즐길 수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조상들의 조국애와 지혜가 묻어 있는 유등놀이를 함께 체험해보자.

장소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및 남강 일원  
기간 | 10월 1일 ~ 10월 11일



광주세계김치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 문화와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핵심 코드인 '김치'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음식문화 축제이다.

대한민국 김치의 천 년의 맛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축제에서는 김치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누려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축제장소를 전국 유일의 김치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으로 옮겨 그 규모가 커졌으며 김치와 예술, 생활, 여가가 어우러진 공감각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제장에 사용하는 김치 원부재료를 광주지역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맛있는 김치를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유일의 김치대통령상인 '김치명인선발대회'를 비롯해 각종 김치경연행사와 김치기획전시관, 콘서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연까지 축제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 거리는 풍성하다. 김장의 계절,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세계김치축제를 찾아 김치 맛의 진수를 직접 느껴보자.

장소 | 광주 남구 광주김치타운  
기간 | 10월 24일 ~ 10월 28일



순천만갈대축제



드넓은 갯벌에 갈대의 물결이 출렁이는 곳, 70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순천만 갈대밭 풍광은 가을이면 더욱 장관을 이룬다.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해 바다와 만나는 순천만의 숨은 비경은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면서 순천 제일의 명소로 떠올랐다.

순천만갈대축제는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의 모습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갈대가 절정에 이르는 11월에 열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갈대축제이다.

축제는 '갈대의 멋 따라, 갈대의 맛 따라'를 주제로 순천만 걷기를 비롯해 철새 탐험, 갯벌 체험, 전통공연, 순천만 사진전 등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져 흥겨움을 더한다. 순천만갈대축제의 볼거리는 순천만 갈대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기간 순천시 전역이 축제 기간으로 순천 어디를 가든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감만족 가을여행을 꿈꾸신다면 올해는 순천만을 찾아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장소 | 전남 순천시 순천만, 동천 일원  
기간 | 11월 6일 ~ 11월 8일



가을축제, 이곳을 주목하라! 11월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제주의 겨울은 방어와 함께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슬포 앞 바다는 돌아온 방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모슬포는 제주에서 방어잡이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겨울을 목전에 둔 11월이면 돌아온 겨울과 방어를 맞이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제주의 대명사인 최남단방어축제이다. 축제 이름처럼 방어를 주제로 열리는 최남단방어축제는 매년 15만~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주의 대표적 해양문화축제다.

싱싱한 방어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어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각종 방어낚시, 현장 방어경매, 손으로 방어잡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뤄 가족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에서 나아가 낚시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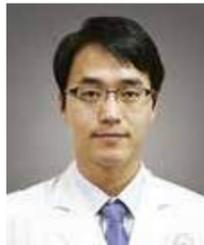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의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최남단방어축제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장소 |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  
기간 | 11월 12일 ~ 11월 15일





# 스마트 시대, 편리함을 시기한 불청객, 수근관(손목 터널) 증후군



글 배 인 탁  
안양샘병원 정형외과 과장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대인은 쉽고 편리한 스마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스마트 기기와 함께 보내느라 현대인의 손은 혹사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편리함 속 불청객 스마트 증후군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스마트 증후군은 최근 생활질환의 대표 주자로 연일 화제다. 특히, 수근관(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매년 급증하며 스마트 증후군을 대표하는 손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 시대의 불청객 수근관(손목 터널) 증후군. 그 원인부터 예방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 수근관 증후군은 무엇인가

수근관(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반의 감각과 엄지 손가락 운동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중 신경이 압박되어, 손과 손가락의 저림, 통증, 감각 저하, 부종, 힘의 약화 등이 나타나는 말초 신경 압박 증후군이다.

##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 시에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과 반드시 감별해야 하며, 전신 질환으로 만성신부전,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시에도 본 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일시

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수근관 증후군은 아래의 여러 임상 증상과 함께 손목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펼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구부리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진찰방법은 자가 진단법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두드릴 때 손가락에 저리는 느낌이 오면 수근관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 증상만으로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손목 굴곡 검사



손목 타진 검사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신경 근전도 검사와 같은 전기생리학적 검사가 도움이 된다.

이 검사를 통해 신경에 병이 있는지 근육에 병이 있는지 병변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한지 등 병의 유무 및 진행 여부, 회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다.

## 수근관 증후군의 치료법

증세를 보인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젊은 환자라면 약물치료나 다른 보존적 요법(비수술적인 요법)만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세가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지속된 환자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 저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휴식

가끔씩 손 저림이 나타나는 초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손목이 굽혀지는 자세를 피해 주기만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지나친 손목이나 손의 사용을 억제하고 장시간 손목이 낮은 자세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 아래에 쿠션을 받쳐 주는 것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 손목 부목(splint)

약물 복용 없이 일시적으로 부목을 사용하여 손목을 고정함으로써 손목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것도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잠잘 때의 통증이 주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목을 지는 동안에 착용시키면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이는 수면 중에 손목을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펴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

### 경구 약물 치료

도움이 되는 약물로는 소염진통제, 신경재생을 촉진시키는 비타민B 등이 있다. 수근관 안의 근육의 힘줄과 그 힘줄을 둘러싸는 막 주위로 염증(건초염, 활액막염)이 있으면 소염진통제를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깨어 있는 경우에도 경한 통증이 있거나 손의 힘에 간헐적인 약화가 있는 경우에도 소염진통제의 사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 주사 요법

주사 요법은 수주간 간격(4~6주)을 두고 2~3회만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확실한 수근관 내의 병리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른 병리가 동반된 경우에는 주사 요법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통증은 비교적 심하나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증세의 완화는 일시적이며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 수술적 치료

수근관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는 정중 신경을 압박하는 가로손목 인대를 잘라주는 시술을 하는 것이다. 수술적 치료 시에는 일반적으로 손목의 절개부위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국소마취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마취로 인한 합병증의 부담이 거의 없으며 전신 마취나 부분 마취 후와 같은 불편함이 없어 수술 후 회복에도 별 문제가 없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거나 최소 절개법을 시행하여 2~3cm 정도의 흉터만 생기므로 외관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다.

##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수근관 증후군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예방법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시간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평소 손목 돌리기나 깎지를 낀 상태로 앞으로 팔 뻗기 등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나 마우스를 만지는 손가락보다 손목이 낮은 자세로 작업하는 데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손목과 손가락을 피아노를 치듯 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한다. 손목을 높이기 위해 스펀지 같은 것으로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3~4분 간격으로 손을 털어주고, 의자에 등을 기대어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가락이 약간 빠르길 때 주먹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손목 신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손목이나 손의 사용 등의 운동을 억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

### TIP '수근관 증후군'의 주요 증상

- 손끝이 따끔따끔한 느낌이나 화끈거림이 있으며 저린 느낌 또는 통증이 있다.
- 엄지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엄지쪽 반쪽 부위와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하다.
- 특히, 통증이 야간에 심하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손을 주무르거나 털고 나면(흔들어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
- 점차 진행하면 엄지손가락 쪽 근육의 근위부(엄지두덩 또는 무지구)에서 근육 위축이 발생하여 이 부위가 납작해진다.
- 정교한 작업이 어려워지고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일상 생활에서 세심한 운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 손에 쥐는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에 장애가 생기고 병마개를 돌리는 힘이 약해지거나, 빨래를 짜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 손바닥 쪽의 피부가 변들거리거나 건조해진다.
- 저리고 아픈 증상이 팔꿈치나 어깨 및 팔 전체와 목으로 확대된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 운전 도중 손이 저린다.
- 아침에 손이 굳거나 경련이 일어난다.

# 여의도의 재발견, 여의도는 살아있다



여의도공원은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전통의 숲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 여의도 사람들의 휴식공간, 여의도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은 약 23만㎡의 규모의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여의도의 허파와 같은 여의도공원은 1968년에 시작된 여의도 개발계획에 따라 여의도 주변에 독이 축조된 후 1972년에 광장으로 조성되었다. 시멘트로 덮혀있어 삭막하던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2년 후인 1999년 1월에 여의도공원으로 개장했다. 이 공원을 기준으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누며, 섬의 중앙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연결하는 도로축이 형성되었다.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여의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건물마다 칸칸이 들 어선 딱딱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 이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셔츠와 타이 차림의 직장인들이 햇볕 아래에서 산책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거나,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 조성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자연의 향기는 샐러리맨들에게는 더 절실할 터.

겨울이 지나고 한결 햇살이 따듯해지는 봄이 오면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두꺼운 패딩점퍼를 벗어 던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휴대폰과 카메라로 봄의 풍경을 담는다. 여름이 되면 덩굴 터널을 따라 탐스러운 조롱박이 열리고 연못에는 연꽃이 한가득 피어난다. 가을에는 공원 전체가 노란색 단풍잎과 낙엽으로 뒤덮여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한겨울만 빼놓고 샐러리맨들은 물론 이곳 주민들에게 여의도공원은 휴식의 공간이자 사색의 공간이다.

여의도공원은 자연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전통의 숲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식재된 나무 종류만 121종이 넘으며, 2.4km의 자전거도로와 3.9km의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한강을 향해 걷다 보면 여의도한강공원의 물빛광장에 닿는다. 물빛광장은 계단형의 독특한 구조물을 이용해 흐르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 공간으로 광장과 무대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시민 휴식공간이다. 특히,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저녁이 되면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시민들로 인기가 많다.



여의도공원



물빛광장



글·사진  
석현정 여행 작가

여의도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국회의사당과 수많은 금융기관과 방송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수많은 기업의 샐러리맨들과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여의도를 다시 한 번 걸어봤다.



**아름다운 국회정원**

우리나라 정치 1번지, 국회는 서여의도의 중심에 있다. 은은한 옥빛의 돔 지붕은 우아하고 권위를 갖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사당을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의원회관이 말끔하게 리모델링되었다. 한강 방면으로 국회도서관, 국회방송(NATV)과 국회한옥(사랑채)이 들어서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1987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약 460여 만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학생들부터 기자들까지 이용하는 공간이다.

국회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방문자센터를 방문해도 좋을 듯하다. 국회 방문자센터는 헌정기념관 내에 있다. 국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전시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회 견학을 비롯한 모든 관람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 명소가 있으니 국회한옥이라 불리는 사랑채다.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 쉽지 않지만, 이 국회한옥은 한강을 굽어보는 조망이 뛰어나기로 소문나 있다. 특히, 국회에 외국에서 귀빈이 방문할 경우 머무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을에 단풍과 어우러진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국회와 국회 인근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는 명소다. 특히, 봄에는 윤중로를 중심으로 벚꽃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인산인해를 이룬다. 여름에는 신록이 무성하다. 국회정원 또한 낮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은 명소다. 나무가 우거진 그늘 아래에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 작은 북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쉼을 이용해 독서를 즐길 수도 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도로는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소란스럽지만, 그늘 아래에만 들어오면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만 같은 곳이 국회정원의 매력이다.

특히, 국회정원은 가을에 꼭 들러볼 만하다. 국회정원만큼 낙엽과 단풍이 아름답게 쌓이는 공간도 찾기 힘들 정도다. 노랗고 붉은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가을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조경에 신경을 썼다.

다가오는 가을, 국회도서관에서 책 한 권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 아니, 굳이 도서관이 아니면 어떠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독서만큼 사람의 마음을 살피우는 것도 또 없으리라.



**국회정원은 가을에**

**꼭 들러볼 만하다.**

**노랗고 붉은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가을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양화대교,**

**당산철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등이**

**여의도와 만난다.**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는 특별한 경험**

한강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강폭이 넓은 한강은 시야의 답답함이 없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서울시민에게 선물한다. 또한, 63빌딩을 비롯해 여의도와 강남지역의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고층 빌딩들, 국회의사당과 멀리 보이는 남산과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랜드마크를 품고 있는 서울의 젓줄이다.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양화대교, 당산철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등이 여의도와 만난다. 특히, 서강대교와 마포대교는 마포구와 여의도를 이어주는 다리로 시민들에게도 접근성이 좋아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에 좋다.

마포대교는 생명의 다리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문구와 이미지가 마포대교 난간에 새겨졌다. 마포대교 동편 중간 전망대 구간에는 '한 번만 더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이 한 번만 더 동상은 실의에 빠진 한 남자를 다른 남자가 불을 꼬집으며 위로하는 모습으로 "여보게 친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라는 메시지가 등에 새겨져 있다. 생명의 다리 시행 이후 실제 자살률이 줄어드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운영비용 부담으로 기존의 생명의 다리가 철거되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 하니 앞으로 마포대교의 모습이 기대된다.

마포대교와 나란히 한강을 건너는 서강대교는 붉은색의 아치가 인상적인 다리다. 광흥창역을 비롯한 신촌 일대와 여의도를 잇는다. 한강의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이 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면서 보아야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강대교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오른쪽에는 여의도에 자리 잡은 마천루들이 솟아 있다. 시민들은 한강공원의 곡선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오간다. 반대편으로는 붉은 색 아치 너머로 보이는 일몰을 배경으로 한강 수영장과 국회의사당,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발전소가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멀리 당산철교와 양화대교가 한강 물에 반사된 그 풍경은 또 어떠한가. 서강대교 아래로 이름도 귀여운 '밤섬'을 지날 수 있다. 그렇게 약 1.4킬로미터를 걸어가면 강북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퇴근길, 강변북로 위로 자동차의 붉은 미등들이 즐비하다. 서울의 여의도는 가장 바쁘게 시간이 가는 곳이면서, 또 시간이 가장 천천히 흐르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내가 사는 서울은 아름다웠다. 🍷



하늘과 바다가 감싸 안은 천공의 섬,

# 몽 생 미셸 *(Abbaye du Mont Saint-Michel)*

양들이 뛰어노는 들판을 지나 아련하게 보이는 섬 하나. 마치 신기루처럼 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섬, '몽 생 미셸(Mont St-Michel)'이 서 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프랑스이지만 그중에서도 몽 생 미셸은 단연 최고 중의 최고이다. 이 자그마한 섬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바위 덩어리로 된 굳건한 성채 같기도 하고 하늘 높이 쏟아 오린 기둥을 보면 성당 같기도 하다.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천공의 성을 보는 듯한 착각을 주는 몽 생 미셸.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작은 섬에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운 걸까.

## 대천사에게 바치는 천공의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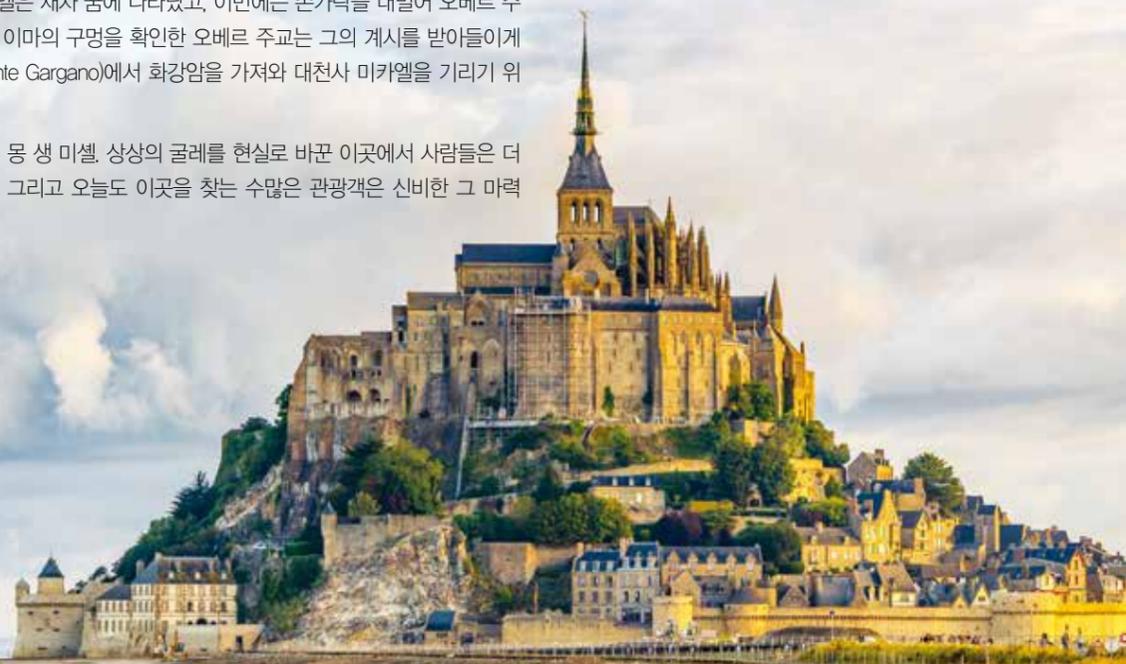
몽 생 미셸은 프랑스 북서쪽 노르망디의 해변에 뜬 작은 섬이다. 거주 인구 41명, 면적은 0.97km<sup>2</sup>에 불과한 이 작은 섬은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이다. 어떻게 이 작은 섬에 그토록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걸까.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몽 생 미셸을 검색해 본다면 그 궁금증은 쉽게 사라질 것이다. 강렬한 인상과 바다 위에 홀로 솟구친 천공의 성처럼 보이는 수도원의 모습은 신비로움과 환상적 자태를 뽐낸다. 몽 생 미셸은 '성 미카엘(Saint Michael)의 산(山)'이라는 뜻으로, '미셸'은 성 미카엘의 프랑스식 발음으로 대천사 미카엘을 지칭하는 말이다.

몽 생 미셸은 신비스러운 외양만큼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예사롭지 않다. 708년 대천사 미카엘이 오베르 주교의 꿈에 나타나,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광활한 만의 한복판에 떠 있는 바위섬, 몽통브(Mont-Tombe) 산상에 성당을 세울 것을 명했다. 하지만 오베르 주교는 이를 무시했고 이에 화가 난 대천사 미카엘은 재차 꿈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손가락을 내밀어 오베르 주교의 머리를 태웠다. 꿈에서 깨어나 이마의 구멍을 확인한 오베르 주교는 그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탈리아의 몽테가르가노(Monte Gargano)에서 화강암을 가져와 대천사 미카엘을 기리기 위한 성당을 지었다.

하늘과 바다가 감싸 안은 천공의 섬, 몽 생 미셸. 상상의 굴레를 현실로 바꾼 이곳에서 사람들은 더 큰 판타지 세계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은 신비한 그 매력 속에 빠져든다. 📍



- **작품명** 몽 생 미셸 수도원 (Abbaye du Mont Saint-Michel)
- **건축양식** 로마네스크 / 고딕 / 플랑부아양
- **소재지** 프랑스 바스노르망디주(州) 망슈현
- **건축연대** 8~15세기



# Thelma & Louise (1991)

“We may have been off track, but now we’re back to our true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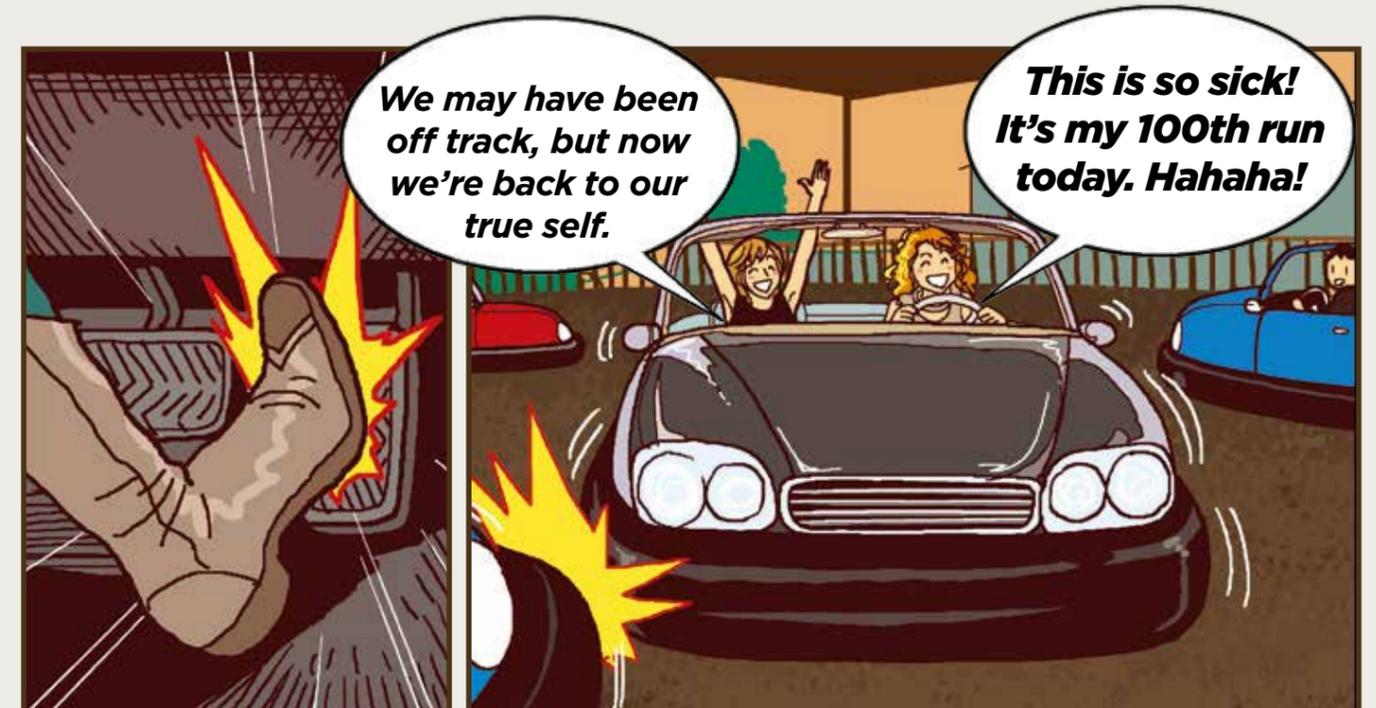
그림. 임성훈



루이스 : 델마, 준비는 됐겠지?



델마 : 물론이야 루이스! 우리 절대 잡히지 말재! 가재! 밟아!



델마 : 우리들이 조금 탈선은 했지만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어.  
루이스 : 완전 재미있어, 이걸로 오늘 100번째다. 하하하!



ISO FAR 2015 Goesan  
International Organic EXPO-Industry Fair

#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일시 2015. 9. 18 ~ 10. 11

장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 일원  
(유기농 엑스포 농원)



조직위원장 송해



# 2015 경주실�크로드대축전

8.21\_10.18 (59일간)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

주 최 : 경상북도, 경주시

주 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